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

The-K는 언제나 교육가족 앞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더 높이 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호텔앤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 저축은행 The-K 교직원나라 The-K 소피아그린 The-K 에다함상조



The-K

MONTHLY MAGAZINE



「오늘의 학교」
내 안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노트 쓰기'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이재영 교수



「좋은 사람 좋은 생각」
평생 배우는 삶이
편견없는 교육의 시작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



「꿈 너머 꿈」
모두가 즐기는 학교 체육을 꿈꾸며
체육 히어로가 출동합니다
여자교사체육교육공동체 '윈더티처'
전해림&홍유진 교사

2023 01
vol.65

- ☞ **생각 나누기** 신년 특집 공제회원 23인의 2023년 계묘년 삼행시 버킷리스트
- ☞ **배움 더하기** 고민 상담소 부모와 자녀의 무거운 갈등, 자녀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가 우선
- ☞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마법처럼 아름다운 얼음 왕국,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
- ☞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2023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04** 신년사
_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
- 06** 여는 글
빛나는 나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
- 08** 공제회원 23인이 전하는 2023년 '계.묘.년' 삼행시 버킷리스트

☞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 12** 이달의 도움 회원
- 14** The-K 예술가
민낯의 수줍은 내 손
맨 처음 잡아주는 이 그대였으면 좋겠어
- 16** 에세이
스승의 발자취를 이을 새해의 다짐
- 18** 좋은 사람 좋은 생각
평생 배우는 삶이 편견없는 교육의 시작
"학생만이 학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_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
- 22** 역사 속 숨은 영웅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숨은 영웅들
_ 일심동체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장도빈·김숙자 선생
- 26**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시절 학교와 마을 풍경

- 발행일 2023년 1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소통부 미디어소통팀
장영호, 최용호, 김경희, 황수현, 오수민, 박연희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 교열 박해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 28** 오늘의 학교
내 안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노트 쓰기'
_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이재영 교수
- 32** 꿈 너머 꿈
모두가 즐기는 학교 체육을 꿈꾸며
체육 히어로가 출동합니다.
_ 여자교사체육교육공동체 '원더티처'
전해림 & 홍유진 교사
- 36** 고민 상담소
수능 성적에 상처받은 부모와 자녀의 무거운 갈등
자녀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가 우선
- 38** 인생 이모작
하늘 높이 더 멀리
아이들의 꿈을 하늘로 띄웁니다.
_ 드론 교육 자원봉사자 김해충 회원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 42** 방방곡곡 숨은 명소
한겨울 속 반짝이는 산골 마을, 마법처럼 아름다운 얼음 왕국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
- 48** 마음심
새해, 새로운 시작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2023년 신년 계획
- 50** The-K 예방의학
새해 건강 목표, 시작은 '걷기'부터
- 52** 똑똑! 트렌드 경제
롤러코스터와 같은 혼돈의 시대
2023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 54** 건강한 집밥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기다리며
요리로 떠나는 지구촌 새해 여행
- 58** DIY 리사이클링
달리면서 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트레일 러닝 환경보호 단체 '세이브 더'
&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반려동물 장난감

☞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 62** The-K Focus 1
2022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15회 대의원회 개최
- 64** The-K Focus 2
2023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 66** The-K Focus 3
미리 보는 The-K 행복서비스 연간 문화행사 모음집
- 68**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럭
여덟 번째 현장 이야기 :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편
- 72**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 76** 회원 의견
- 80** The-K Family
교직원라이프 생명보험 브랜드 영상 & 한 줄 사연을 만나보세요!
- 81** 새로워진 「The-K 매거진」 온라인 이벤트
- 82** The-K OX 퀴즈
- 83** 즉석 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 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교육 가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최악의 경영여건을 겪었습니다. 1970년 이후 50년 만에 주식, 채권시장이 동시에 폭락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확대되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제회는 위기 속에서도 당기순이익을 거양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두어, 교직원 평생 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환경의 혼돈 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경제를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코로나 이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복합 위기는 단순히 위기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반의 준비로 대응한다면,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맞이하여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뉴노멀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사회·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뉴노멀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동력으로, 다음의 4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2023.1.1.부터 장기저축급여 가입 상한구좌 수를 1,500구좌(월 90만 원)에서 2,500구좌(월 150만 원)로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연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여 연복리, 높은 급여율, 저율과세 등 혜택이 많은 장기저축급여가 실질적 노후 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회원님들에게 신속·정확·편리한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은 온라인상에서 정보처리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언택트 비즈니스 활동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기업들도 이에 신속하게 적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도 뉴노멀 시대의 회원 니즈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회원님들과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에서 요청한 회원자격기준 확대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회원자격기준 확대는 공제회 미래 지향적 발전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당면과제입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자금 조달 시스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경제와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자금수지 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타 공제회처럼 필요시에 자금수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한층 더 높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피 많고 영리한 지략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토끼를 잘 나타내 주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토끼는 3개의 숨은 굴을 파놓는다’라는 뜻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함께 마련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도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겠지만,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나면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라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지난 51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그 성장의 방정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 계묘년 새해지만, 어쩌면 그 위기가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겠습니다.

공제회는 직원 상호 및 직원과 회원 상호 간의 존중문화와 신뢰·혁신·전문성이라는 핵심가치의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왔습니다. 51년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것이며, 회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뉴트로·뉴노멀 시대에 맞는 조직문화와 언택트 금융·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회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

옛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계수나무 아래에서 절구를 찧고 있는 토끼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검은 토끼의 행운을 받아 성취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3년 1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 장 근



☆ 빛나는 나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헌신하고 양보하며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문득 나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를 아끼고 보살펴왔는지 떠올려 봅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신뢰해야 타인에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이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서 성취감을 얻는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빛나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The-K 매거진」 신년호에서는 ‘계묘년’ 삼행시로 다짐하는 공제회원 23인의

새해 버킷리스트 이야기를 시작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 하위 1%의 ‘문제아’로 불렸지만 스스로 가치를 찾아내고자 노력한 끝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가 되어 국경 없는 교육을 펼치며

전세계 소외된 학생들을 돕고 있는 ‘좋은 사람’ 풀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학교’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노트 쓰기 습관’으로 내 안의 천재성을 끌어낼 수 있다며,

스스로 찾아낸 치유와 성장 방법을 공유하는 한동대학교 이재영 교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여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체육 현장의 변화를 꿈꾸는

여자교사체육공동체 ‘윈더티처’ 전해림·홍유진 교사의 희망은 ‘꿈 너머 꿈’에서,

42년간 교육 현장에서 창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은퇴 후에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드론 활용법을 가르치며 교육 봉사에 매진하고 계신 김해충 회원의 이야기는 ‘인생 이모작’에서 소개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나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현명하고 안전한 재테크를 실천하는 방법도 ‘뚝뚝! 트렌드 경제’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집밥’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지구촌의 다채로운 풍습과 각국 새해 음식 레시피를 담았고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아웃도어 활동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세이프 더’ 이야기와

일상 속 각종 재활용품으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드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새해 첫 호인만큼 2023년 회원 중심 금융·복지서비스 강화를 준비하는 제115회 대의원회 현장 소식과 함께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복지부조 개편 등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공제제도·보험·복지혜택 정보,

늘 회원님 곁에 함께할 The-K 행복서비스 연간 행사 모음집도 준비했습니다.

☆
나만의 기준으로 ‘빛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회원 23인이 전하는 2023년 '계묘년' 삼행시 버킷리스트

'계묘년' 한 자, 한 자에 새겨 넣은 2023년의 새 희망을 소개합니다

희망과 위로, 슬픔과 기쁨이 함께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시작됐습니다. 'The-K 매거진'은 지난 12월호에서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는 회원님들의 새해 소망을 듣고자, '계묘년' 삼행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총 3,842명의 교육 가족이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다채로운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삼행시 속에 재미와 위트, 따뜻함과 사명감까지 담은 소망들을 알차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주신 23분 회원님의 버킷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사연 속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회원님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을 응원하겠습니다. ㉠

- 계**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었던 2022년을 보내고
- 묘** 묘하게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2023년에는, The-K 매거진으로
- 년** 연결된 우리 공제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보고 별을 헤아리며 희망을 써 내려간 시인 윤동주처럼

묘 묘지 위에 떠오른 태양을 보고 미소를 배우며 꿈을 노래한 가수 김광석처럼

년 연을 날리는 아이를 보고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며 자유를 표현한 소설가 이청준처럼
2023년에도 아이들과 희망, 꿈, 자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누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 박*서 회원 안산 학현초등학교

계 계묘년 2023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훌륭한 임직원들께서

묘 묘책을 내주시어 대한민국 교육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살피 주셔서

년 연내에 모든 회원이 공제회에 대한 무한 신뢰로 세계의 모든 교직원 복지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수 회원 경기도등학교

계 계획한 대로 소중한 아가를 품고 있습니다.

묘 묘하게도 엄마랑 똑같은 토끼띠로 태어날 우리 아가를 설렘으로 기다리는 연말입니다.

년 연초에는 두 토끼 같은 모녀와 세 가족이 함께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령 회원 소하초등학교

계 계산해 보니 기숙사 고등학교 영양사로 일한지 벌써 20년차가 되었네요.

묘 묘하게 20년이 2년처럼 느껴지네요. 3식이라 몸이 힘들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제 밥 먹고 건강하게 졸업하는 걸 보면

년 년이 거듭될수록 사명감이 더 느껴지네요. 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 조*영 회원 덕신고등학교

계 계단을 올라가다보면 꼭대기가 나오듯 취업의 계단도 걸어 올라가면서 끝이 있을 거라 굳게 믿어

묘 묘기를 부리지 않고 곳곳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2022년에 교직원이 되었다!

년 연극 보러 갈 때의 설렘과 기대감처럼 2023년에도 멋진 교직원 라이프가 펼쳐지길!
- 강*정 회원 경희대학교

계 계절의 변화는 만물을 감싸는 따스한 햇빛과 내면을 단단하게 단련시켜주는 바람, 영양분을 가득 담은 비를 일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어린 생명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귀엽고 어린

묘 묘목들을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길러내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연구하고 고민하시어 학생들의 교육에 늘 애쓰시는 마음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도 2023년 올 한 해, 따뜻한 계절이 되어 연푸른 이파리를 달고 녹음의 꿈을 가득 품고 있을 우리 반의 나무들을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 김*임 회원 검단중학교

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 내년이면 어느덧 7년 차 간호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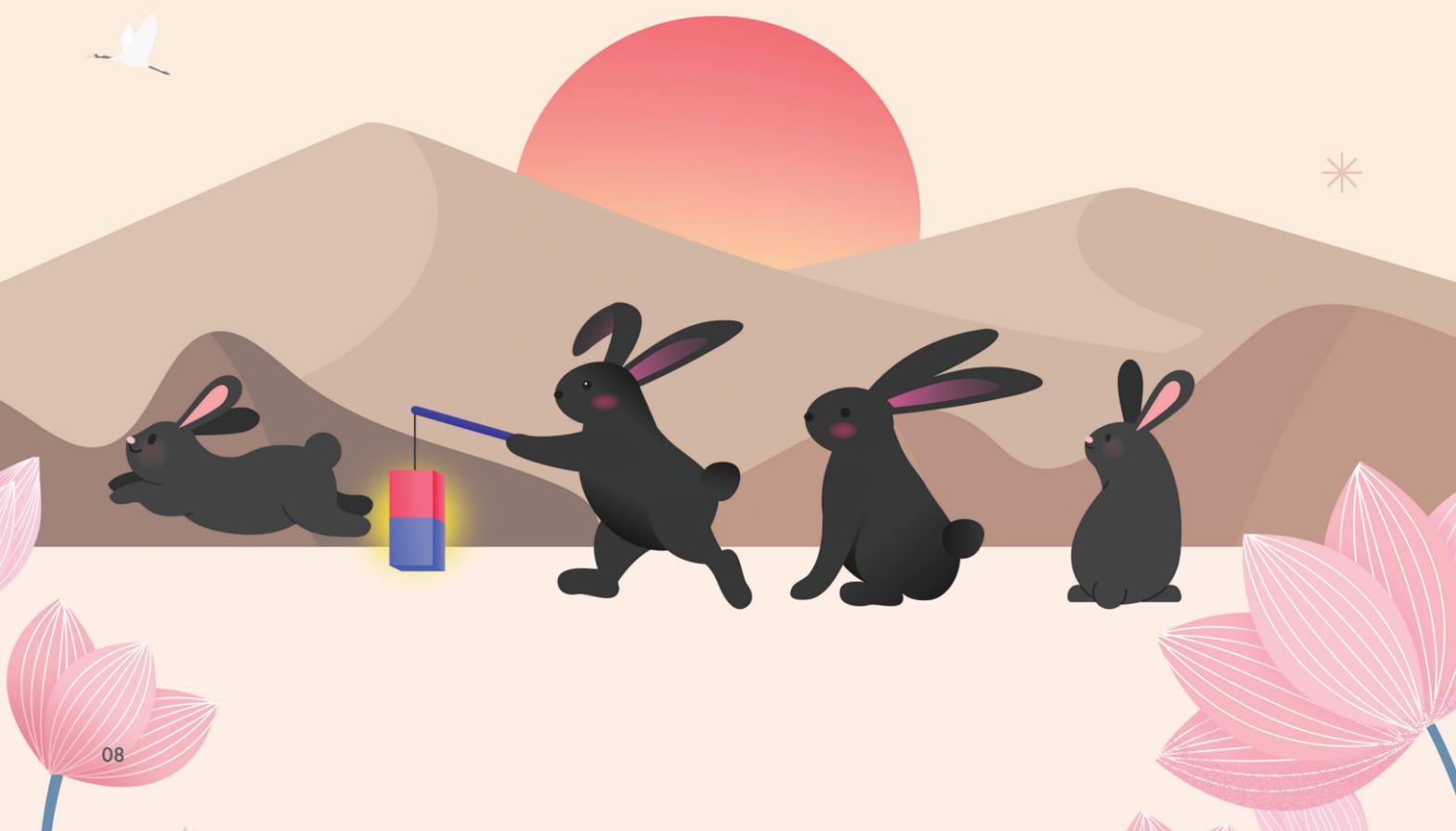
묘 묘하게 빠른 느낌이지만 그동안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환자분들과의 수많은 추억도 생겼지요.

년 연속된 시간의 반복일 테지만 저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며 더 성장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 간호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문 간호사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 문*빈 회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계 계기판 속력 게이지가 꽉 차지 않았더라도

묘 묘기 같은 드리프트를 뽐내지 않더라도

년 연극 같이 꾸며진 삶이 아닌 진솔한 나만의 생을 내년에도 잘 살아가기를
- 이*재 회원 교육부



계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삶의 농도는 배가 됩니다.

목 묘수가 따로 있나요. 건강하게 매일 매일을 계획한 것도 전하며 열심히 사는 게 묘수 중에 묘수지요.

년 연줄 잡아당기듯 우리네 삶을 적절히 팽팽하게 유지하면 넉넉하지요.

- 김*구 회원 前 구일중학교

계 계속해! 우리는 당신이

목 모처럼 기분 좋게 큰소리로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걸,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 그저 지금처럼 내년에도 행복하고 즐겁게, 아무리 힘들어도

년 연기하듯 행복을 표현하는거야. 그러면 행복해질거야. 2023년 파이팅!

- 박*희 회원 대구고등학교

계 계절은 또 다가와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졸업시켜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구나

목 묘하게 잘 통하고, 매 순간이 즐거웠던 우리...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년 연결되어 행복하게 보냈던 2022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길

- 황*호 회원 예봉초등학교

계 계속되는 좌절에 풀 죽었던 한해를 미련없이 떠나보내고,

목 묘안이 번득번득 떠올라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세로

년 연승만 이뤄내는 새해가 되길.

- 오*연 회원 서울중화초등학교

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와 함께하는 2023년! 어떤 일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 묘지 앞에 새길 업적에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2023년에도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년 연습하고 연구해서 발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 김*숙 회원 대구과학대학부설유치원

계 계단을 올라갈 때, 굳이 계단 수를 세지 않고 올라간다. 내년에 겪을 좌절이나 실패도 굳이 세지 않겠다.

목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사는 건 나의 업보이기에 받아들여야 또 다른 길을 시작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년 연필로 썼다 지울 수 있듯이 나의 좌절과 실패를 고스란히 느낀 뒤, 완벽히 지우고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이*리 회원 설봉초등학교

계 게이름을 알까 싶은 네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목 묘한 기분이 들었지. 우리 가족은 지난 시간 함께 힘낸 것처럼 느린 네 걸음에 늘 함께할 거야.

년 연이 바람을 타고 신나게 하늘을 날듯 우리가 너라는 연에 바람이 되어줄게. 두렵지만 새해에도 우리 함께 파이팅!

- 조*희 회원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에 무의미한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목 묘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년 연한 붓칠도 계속되면 결국 가장 선명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희망차고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2023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 이*은 회원 서울대학교

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목 묘하고도 기묘한 일들도 기대하지만, 성실하고도 한결같이 인내하며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분들과 그 가정 속에

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 나가는 일들이 형통하여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계묘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최*순 회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계 계단을 쉬지 않고 계속 오르듯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느낄 때

목 묘책만 짜내어 해야 할 일을 능구렁이처럼 넘어가 버리는 내 모습에 지칠 때,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년 연습이 필요구나 느끼며 한숨 돌리고 쉬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 회원 거제고현중학교

계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는 결혼했겠지만 엄마에게

목 묘사한 나의 운명의 짝은 없었을 뿐이고

년 연말은 다가와 초조하지만 2023년에는 새로운 인연이 와서 결혼에 골인할 거라 믿어요!

- 김*연 회원 진교고등학교

계 계산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길이지만 내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 묘미가 있듯이 새옹지마 같은 삶도 서로가 힘이 되어준다면 행복이 여기저기서 봄날의 새싹처럼 불쑥 솟아나겠지요. 자신에게 찾아온

년 연을 소중히 여기며 2023년 한 해도 사람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 윤*희 회원 학생여자중학교

계 계묘년은 나의 교직 인생이 마감되는 뜻깊은 해, 5년 전부터 세운 꿈을 이루어 가는 중입니다.

목 묘수는 없고 한 가지 한 가지 꾸준히 조건을 채워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요. 상담사가 되려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년 연찬과 실습이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여 예상보다 늦어지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디게 가면 어때요?

- 김*희 회원 두암초등학교

계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목 묘하게도 처음은 혼자였는데, 걸다 보니, 뛰다 보니 함께 걸고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년 년년세세(年年歲歲) 시작은 미약해도 그 끝은 참대한 시간을 연대하는 이들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묘년에도요. 대한민국 파이팅!!!

- 양*화 회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계 계묘년에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목 묘하게 아빠와 딸은 첫째 아들은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엄마를 쏙 빼닮은 막내딸은 오빠와 함께 병설 유치원을 새롭게 다니게 됩니다.

년 연년생 남매들 돌보아야 하느라 아빠는 육아휴직을, 엄마는 또 열심히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잘 적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아 회원 평택여자고등학교



◀ 이벤트 당첨 확인하기

※ 지면에 소개된 23분에게는 이마트 모바일상품권(3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230분에게는 이마트 모바일상품권(1만 원)을 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시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The-K 매거진'이 응원하겠습니다.



이달의 도움 회원

「The-K 매거진」 '이달의 도움 회원' 코너에서는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과 스태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월 매거진 제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시는 인터뷰이(interviewee)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게 뒤에서 애써주시는 도움 회원과 스태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인생 이모작’ 김해충 회원(왼쪽), 강세창 단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자원봉사단 강세창 단장

“ 모든 교사는 봉사활동을 경험한 경력자입니다 ”

2022년 7월, 초등학교에서 교장·교감을 역임하고 은퇴한 교직원의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자원봉사단이 발족했습니다. 퇴직 교직원이 경력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강세창 단장이 합심해 만든 봉사단체입니다.

시니어 자원봉사단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 교직에서 쌓은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지도와 도시락 봉사는 물론 체육·미술·음악·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인 김해충 회원 역시 이 봉사단을 통해 드론 봉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강세창 단장은 “교사란 본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교실에 서는 교사는 없습니다. 모든 교사는 교육 봉사활동을 한 경력자입니다. 그러니 퇴직 후 ‘봉사’라는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라며 “더 많은 퇴직 교직원이 소외된 교육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도전을 실천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자교사체육공동체 ‘원더티처’(WONDER-TEACHER)

“ 학교 체육을 리드하는 여성 체육 교사가 되겠습니다 ”

원더티처는 체육연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여성 교사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입니다. 이번 호 ‘꿈 너머 꿈’에 소개된 전해림(덕성여자고등학교), 홍유진(당곡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현재 약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 체육 교사들에게 필요한 스포츠 기술뿐 아니라, 단체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나누고 향상하고자 올해 2월 모임을 만들고 구성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더티처의 메인 연수는 ‘돌체(돌아온 체육 시간) 클래스’로 교사도 낯선 종목을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지금껏 매달 한 차례씩 추크볼, 태그럭비, 네트볼 등 20여 가지 종목을 진행했는데도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연수 개설 때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같이 분 단위로 마감되곤 합니다. 모두 하나라도 더 배워보고자 온 힘을 다해 수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배운 활동들을 학생들과의 수업 시간에 적용합니다.

전해림 교사는 “우리의 활동으로 여성 체육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학교 체육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인천소방고등학교 유정호 역사 교사

“ 정제성의 시작은 역사, 재미있는 역사를 교육합니다 ”

「The-K 매거진」의 고정 칼럼 ‘역사 속 숨은 영웅’을 집필하고 있는 유정호 교사는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중·고등학교 15년 차 역사 교사입니다.

활발한 집필과 강연, SNS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를 알리려 힘쓰고 있는데요.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데 매우 필요한 학문이다”라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구보다 교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교사이자 작가인 그는 “학생들과 접점에 있는 교직원분들에게 역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교육과정에서 유용한 교재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바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경필 작가

“ 잘 쓰고 현명하게 모으는 투자법을 전합니다 ”

‘뚝뚝! 트렌드 경제’ 코너를 맡아서 집필 중인 김경필 작가는 2030 젊은이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머니 트레이너이자 경제 칼럼니스트입니다. 6권의 경제 서적을 발간한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뛰어난 입담과 재치 있는 강연으로 연간 100회 이상 출강하는 섭외 1순위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불안정한 경제 시장에서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법칙에 대해 조언하고 체계적인 월급 관리법 등 건강한 투자방법을 제시합니다. “요즘 같은 경제 침체 시기에 공제회 회원님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라며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뿐 아니라, 현명하게 절약하고 잘 쓰는 방법도 나누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도움 스태프

“ 재활용품에 따뜻한 감성과 개성을 담고자 노력합니다 ”

임민수 감독



매월 재활용품을 활용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DIY 리사이클링’ 코너의 섬세한 과정 컷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임민수 감독입니다. 1년여간 코너 영상을 맡아온 그는 재활용 소재의 특성과 완성될 제품의 특징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최적의 촬영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대학에서 기획연출을 전공하고 패션·뷰티 영상을 주로 촬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DIY 제품에도 각자의 특성을 담아 매력적으로 표현해 냅니다.

“재활용품이지만, 그 어느 새 제품보다 가치 있고 한 번 더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조명과 앵글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라고 말하며 “공제회 회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민낯의 수줍은 내 손

맨 처음 잡아주는 이 그대였으면 참 좋겠어



희망의 꽃 | 김규리 회원 (前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수채화 물감, 번지기 기법, 92*65cm, 2018

작가 노트 :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순수한 감정이 사라져가는 삭막한 시대에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자연은 우리에게 활짝 핀 희망의 꽃으로 희색빛 도시에 따뜻함을 보내 준다.

발아

전
재
복

그대가 가슴을 열어
받아주기 전엔
나는 그냥
꿈을 품은 작은 씨앗이었어
진열대 위 뽀뽀한 종이봉투 속
끝모를 내 기다림의 한계였지

기름진 땅이 아니면 어때
특 던져진
응골찬 작은 알갱이 하나
무심히 받아 들였다가
별 뜻 없이 품었다 해도 괜찮아

시간이 멈춰버린 단단한 껍질
밝음을 향한 핏빛 열망으로
하루 이틀 혹은 사나흘
온몸으로 부딪혀 깨고 말 거야

진땀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악 껍질을 벗고 나온
민낯의 수줍은 내 손
맨 처음 잡아주는 이
그대였으면 참 좋겠어

WRITER



전재복 시인은 군산 출생으로 군산교육대학을 졸업, 36년간 교직에 몸담은 후 2008년 교감으로 명퇴했다. 1979년 『소년조선』에서 동화, 1992년 『한국시』에서 시, 2005년 『스토리문학』에서 수필로 각각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군산문인협회, 기쁜시문학 회원 등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집 『개밥바라기별』, 『풍경소리』, 『연잎에 비가 내리면』, 『잃어버린 열쇠』, 산문집 『침표, 숨표』 동화 『공공이가 있어요』 등을 집필했다.

※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스승의 발자취를 이을 새해의 다짐

글 백남오 수필가 (前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작가 백남오는 2004년 「서정시학」 수필, 2015년 「수필과 비평」 평론으로 등단했다. 수필집 「지리산 종석대의 종소리」 등 4권, 수필선집 「겨울밤 세석에서」를 집필했다. 제2회 수필미학문학상, 제13회 김우중문학상, 제5회 시대의 에세이스트상을 수상했다. 경남대학교 수필교실, 함천군 수필교실 지도교수로 활동하며 제자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보면 40년이란 세월을 이어가는 나의 교직 생활이다. 기나긴 시간 동안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이 고맙기만 하다.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내가 가르친 학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새해 아침이다.

그동안 내가 배운 선생님들은 100여 분 이상 되고, 가르친 학생들은 수만 명도 더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선생님이 나의 스승이 될 수는 없고, 그 많은 학생이 나의 제자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사제의 정은 각자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처음에는 제도가 만들어준 물리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서로에게 각별한 존경심과 애정이 쌓일 때 맺어지게 된다. 제도적으로 배우고 가르쳤다고 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하며, 스승은 그 제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때 선택의 폭과 무게는 당연히 제자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은 두세 분 정도다. 초등학생 시절, 그 척박한 산골에 초인처럼 오신 20대 총각 선생님이 계신다. 1960년대의 그곳은 전교생 60여 명에 복식학급이었으니 무엇보다도 중학교 입학시험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식처럼 생활과 학업을 돌보아 주셨다.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결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만약 중학교 시험에 붙지 못했다면 나는 그곳 산골에서 평생 지게꾼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한 분의 스승은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끄셨다. 선생님은 고매한 인품으로 제자들의 아픈 부분을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다. 자신감을 잃고 문학을 포기한 나를 불러 문인의 길을 걷게 하셨다. 청년 시절 작가를 꿈꾸었지만 주변에 그 누구도 나의 문학적 역량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러한 여건에서 오직 선생님만이 나의 글이야말로 미래를 열어갈 열정이 뻗 작품이라며 격려와 함께 추천을 해주셨다. 한 줄기 생명수 같은 다독임이었다. 오직 노력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스승을 모시는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

문학의 길에서 만난 스승도 있다. 비록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 무한정 신뢰를 보내며 나를 성장시킨 분이다. 스승이 되는 길에 학문과 인격이 중요하지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지식과 정신은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물려받았다.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음은 분명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스승님은 모두 운명의 방향을 돌려놓을 만큼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다.

나의 제자는 얼마쯤이나 될까.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기는 할까. 부끄럽지만 가끔 궁금할 때도 있다.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33년, 대학에서 10년 이상을, 평생 가르치는 일만 했는데, 나름대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많은 작가도 길러냈는데, 하고 위안을 해보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단 하루라도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아직도 나의 인품은 넉넉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은 미숙하며, 학문과 문학의 깊이 또한 출중하지 못하니 따르는 제자가 있기는 하겠는가 싶을 때가 많다. 그러나 어찌하랴. 선택은 나의 몫이 아니니 말이다.

때로는 나 혼자만의 사랑일지라도 내가 가르친 그 수많은 학생이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환한 미소로 손짓해 줄 때도 있다. 무학산에서 불어오는 아련한 그리움의 향기가 울컥 스쳐 지나간다. 좋은 스승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해 보는 새 아침이다. ㉔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에세이」, 「나도 칼럼니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업무 현장을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육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매거진에 실어드리겠습니다.

- ★ 원고 분량 : 원고지 12매 (A4 1매 반)
-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 마감일 : 매월 10일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멘토들에게 귀 기울이고 교육 철학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미국의 자택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폴 김 부학장님과 그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삶이 편견없는 교육의 시작

"학생만이 학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

배움에는 적기가 있다고 한다. 물론이다. 배움에는 적기가 있고, 그 시기는 지금이다. 모든 인간의 평생 직업은 바로 학생이다. 우리는 평생, 다시 배워야 한다.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언제나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학생이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꼴찌 학생에서 명문대 부학장으로, 국경 없는 교육을 펼치다
대한민국 하위 1% 학생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된 사람. 폴 김 부학장을 설명하는 말이다. 초·중·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 그는 성적순으로 세워둔 줄의 맨 끝자리를 벗어난 적 없는 학생이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하는 것을 찾아봐”, “너는 할 수 있어”라는 응원과 격려가 아닌 차별과 꾸짖음이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긴 폴 김 부학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TV 브라운관 속에서 만나던 나라, 미국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컴퓨터공학과 교육공학을 차례로 전공하고 미국 최대 온라인 대학교인 피닉스대학교 최고기술경영자를 거쳐,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자 최고기술경영자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21년째 그곳에서 교육혁신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 개발한 온라인 수업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는 전 세계 170여 개국, 2만 명이 참여하며 혁신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의 교실 안에서 교육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던 그가 지금은 교육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것이다. 폴 김 부학장의 시선은 항상 학교 밖 수많은 학생을 향한다. 그는 비영리 국제교육재단 ‘시즈 오브 임파워먼트(Seeds of Empowerment)’를 설립해 전 세계 봉사자와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발한 열악한 교육 환경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통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학습 솔루션 ‘SMILE(Stanford Mobile Inquiry-based Learning Environment)’은 2016년 유엔 미래 혁신 학습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교육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경비행기 조종을 배우며 학생 입장에서 다시 얻은 깨달음**
선 살의 나이에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도 교육 때문이다. 오지로 교육 봉사를 다니려면 육로보다 하늘길이 수월했다. 그리고 2018년 훈련을 시작해 2021년 계기비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는 교육자로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훈련받는 동안 학생 신분으로 3명의 교관을 만나면서 학생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또 좋은 교육자는 학생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은 것이다. “경비행기 조종술을 배우며 3명의 교관을 거쳤는데, 흥미롭게도 모두 다른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교관은 신참이지만 제게 늘 ‘잘한다’라며 긍정적 피드백을 줬어요. 칭찬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제게 큰 힘이 되었죠. 두 번째 교관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줬어요. ‘그것밖에 못 하느냐’, ‘그래선 시험에서 떨어진다’ 하는 식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주눅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만난 교관은 노련한 사람으로, 제게 정확한 피드백을 줬어요.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될지 짚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정리하면, 첫 번째 교관과 세 번째 교관의 긍정적 피드백과 구성적 피드백은 제게 큰 도움이 된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살면서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학생이 되어보니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골동품 비행기로 장거리 훈련 중인 모습



The-K 매거진 편집실과 화상 인터뷰 진행하는 모습(12월 8일)



탄자니아에서의 스마일 프로젝트



르완다에서의 모바일 교육 프로젝트

교육은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티칭'이 아닌 '코칭'

안타깝게도 폴 김 부학장이 학창 시절 자주 들은 것은 부정적 피드백이다. 발명을 잘하고 불합리를 발견할 만큼 영민했지만, 교실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일 뿐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에서 그는 학생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끌어낼 줄 아는 좋은 코치들을 만났다. 그리고 덕분에 "교육은 '티칭(teaching)'이 아닌 '코칭(coaching)'"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티칭은 교사가 교육 주체자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코칭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폴 김 부학장은 학생들에게 "나는 무대 뒤 스태프(staff)일 뿐이다. 주인공은 너다"라고 말한다. 주인공인 학생은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교사, 부모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면 아이는 질문도 도전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또 이미 세워져 있는 하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우리는 4C, 즉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 능력(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을 꼽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비판적 사고가 아닌 단순 비판만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폴 김 부학장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다. 대한민국, 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워주고,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인종, 성별, 배경 등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넘어 '다양성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희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공공의 선(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럼 교육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발전적 생각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공공의 선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원하는 참교육이고,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사,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나'를 찾는 동안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먼저 강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스탠퍼드대학교 교정에서의 폴 김 부학장 모습



베이징 인공지능학회에서 기조연설하는 모습



인도네시아 시골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폴 김 부학장은 질문 없는 교실, 적성보다 성적이 중요한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법은 무엇일까? '좋은'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된다. "만약 세계 한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꿀 것입니다.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초·중·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자기 역량을 찾고 개발하는 데 학교가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는 '학생이 세계와 지역사회(glocal*)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를 판단하고 그 결실을 기초로 평가해야 하고요. 이처럼 기준이 바뀐다면, 학교는 그 기준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이가 폴 김 부학장의 생각을 지지하고,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 그의 생각을 두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폴 김 부학장은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분명 올 거라고 믿는다. 소신을 지키며 거듭 도전하면 그것이 곧 혁신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다시, 배우다

*글로컬(glocal) :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세계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일컫음

Re: learn」 등을 펴내 한국 독자들을 만나고, 여러 방송과 강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아도 자신의 길은 옳다.

"예전부터 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마치면 좋을지 생각하면, 그러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내가 학생이라면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전공으로 삼을지 답을 구할 수 있을 테고요. 커다란 질문에서 작은 가치를 뺏어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답을 구하는 일도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으세요. 그럼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유연하게 넘어가되, 더욱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다. 우리는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학생이 되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게 되며, 교실과 사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폴 김 부학장과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라도 꼭 보고 싶은 교육의 모습이 아닐까?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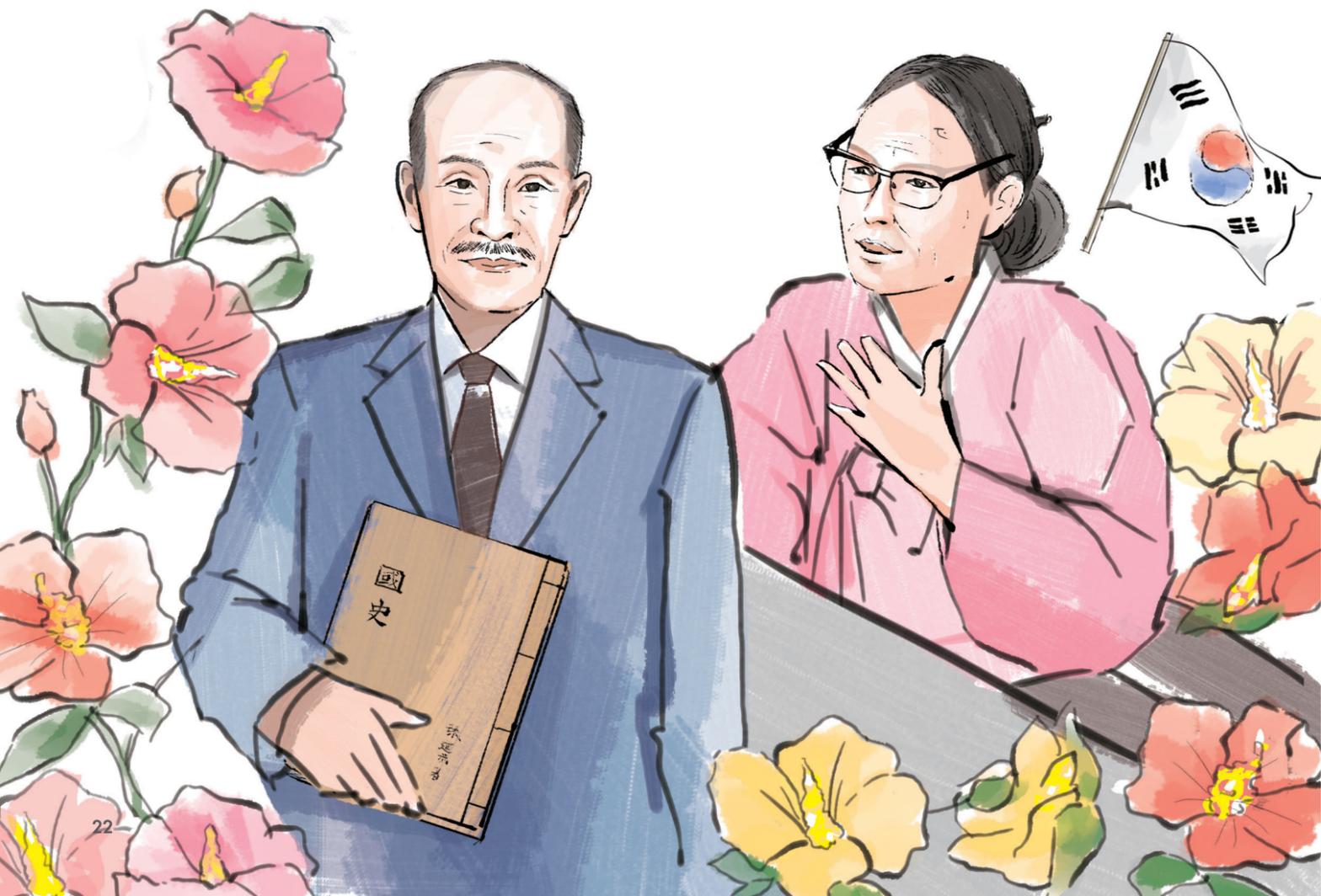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준 숨은 영웅들 일심동체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장도빈·김숙자 선생

장도빈·김숙자 선생 부부는 두 사람 모두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친 영웅이다. 장도빈(張道斌, 1888~1963) 선생은 어린 나이에도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친일 내각과 친일 단체를 비판하고, 항일 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북간도로 망명한 그는 「국사(國史)」라는 책을 발간해 고구려와 발해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호령했던 역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광복 이후에는 한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초대 학장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에 힘썼으며, 「민중일보」를 창간해 민주국가 건설에 앞장섰다.

한편 김숙자(金淑姿, 1894~1979) 선생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경성여고보, 현 경기여중·경기여고) 학생으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학생 항일운동을 이끌어 가다가 휴교령으로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내려갔다. 장도빈·김숙자 선생은 이곳에서 만나 1920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응원하며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김숙자 선생은 대한애국부인회를 이끌며 군자금 모금하다가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으나 일제의 탄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서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데 몰두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역사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지식인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한 영웅 장도빈·김숙자 선생을 만나본다.

글 유정호 인천소방고등학교 역사교사

유정호 교사는 인천소방고등학교에서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구석 역사여행」,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조선과담실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등 역사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원대한 이상을 품은 독립운동가, 언론인의 탄생

19세기 말 조선은 열강의 침탈에 무너져갔다. 이 시기 평안도에서는 나라를 지키려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안창호, 조만식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평안도 출신 독립운동가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는 장도빈 선생이 있다. 장도빈 선생은 1888년 10월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으며, 산운(汕耘)이라는 호를 받았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관직에 나가지 않았는데, 세도 정치로 혼탁해진 세상에서 힘들어하던 민중을 어루만지기 위해서였다. 장도빈 선생은 어려서부터 그런 가풍을 교육 받았다. 특히 다섯 살에 사서삼경을 통달해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영민했던 그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장도빈 선생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도빈 선생의 올곧은 마음과 능력은 평안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재주를 아까워하던 평안 감사는 국가에서 조선의 인재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 설립한 한성사범학교에 열다섯 살의 장도빈 선생을 추천해 입학시켰다.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애국지사를 만나며 식견을 넓혀갔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그는 지식을 나누어준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고향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익힐 수 있게 되자, 나라를 바로잡는 정치가가 되고자 서울로 상경했다. 우선 신민회에 가입해 일제의 침탈에 맞서 싸웠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 큰 인물이 모여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에는 학교와 회사를 세우고, 국외에는 독립군 기지를 창설하는 항일 비밀결사인 만큼 누구나 입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

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불과한 장도빈 선생이 신민회 비밀장부를 보관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은 많은 애국지사의 신임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성전문학교 법과에서 공부하던 그에게 어느 날 은사이자 황성신문사 주필인 박은식이 찾아와 「대한매일신보」 논설위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이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글을 써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때가 1908년 장도빈 선생의 나이 스물하나일 때로 그의 능력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게 장도빈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신채호와 함께 애국심을 고취하는 논설을 기고했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 치외법권을 가진 나라, 영국인 베델로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라 사랑으로, 민족주의 역사 연구에 매진하다

장도빈 선생의 애국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이 눈엣가시이던 「대한매일신보」를 폐간하기 위해 베델과 양기탁을 구속했고 베델이 죽자마자 일본 기관지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이다. 「대한매일신보」가 더는 독립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한 장도빈 선생은 오성학교(협성학교 후신) 학감으로 취임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몰두했다. 더불어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으며 국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오성학교가 일본에 의해 폐교되자 그는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로 임지를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오래 있지는 못했다. 1911년 일본이 신민회를 해산하기 위해 '테라우치 총독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 105명의 민족지도자를 옥중에 가두었고 장도빈 선생도 북간도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기 때문이다.

북간도에서 국사를 가르치던 장도빈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에서 함께 글을 쓴 신채호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거처를 옮겼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곳에서 장도빈 선생은 신채호와 함께 다시 한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썼다. 러시아인 주코프를 발행인으로 내세워 일본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권업신문」에 실린 그의 논설은 나라를 잃은 많은 한국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연해주에서의 그의 삶은 우리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우리 민족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연해주는 과거 부여, 고구려, 발해의 터전이었고 이를 증명할 자랑스러운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를 목도한 장도빈 선생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고구려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국사」를 발간했다. 이후 남북 국시대라는 개념을 사용해 발해를 우리 역사로 편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단국대학교 설립(1948년)을 기념하며
(뒷줄 맨 왼쪽) 장도빈 선생,
(앞줄 맨 왼쪽) 김구 선생
[출처: 독립기념관]

미래 지향적인 교육관으로, 국가 인재를 키워내다

그러던 중 1913년 겨울, 미국에 있던 안창호가 그를 초청했고 미국 방문을 결심한 그는 이듬해 봄에 만주지역의 독립 운동가들을 순방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무렵 신경쇠약 증세가 악화되었고 중국 안동(安東)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게 된다. 귀국 후에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활동은 계속됐다. 3·1운동 이후 일본의 기만적인 민족 분열 통치의 하나로 신문사를 창간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동아일보」 발행 허가를 받아 내기도 했지만 운영권을 내려놓고 그 전부터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분야의 도서 집필에 몰두했다. 그 결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동명왕」 「조선사」 등 역사 서적과 「서울」 「학생계」 등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잡지가 발행되었다.

일본은 언론인이자 교육자로 존경받는 장도빈 선생을 어떻게든 친일파로 만들고 싶었다. 1930년대 민족말살정책 아래 한국인을 식민지인으로 순응시키는 데 장도빈 선생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러나 장도빈은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 제의 등 끈질긴 일본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다.

기나긴 인고 끝에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이하지만, 장도빈 선생은 고향에 머무를 수 없었다.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월남한 장도빈은 「민중일보」를 창간해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1949년 화재로 「민중일보」를 발간하

기 어렵게 되자, 윤보선에게 판권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이후 한국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등을 설립해 초대 학장으로 학사행정을 주재하면서 육군사관학교에도 출강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육과 언론계의 큰 어른으로서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민중일보」:
1945년 9월 22일에 장도빈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창간한 일간종합신문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도빈(張道斌))]

행동하는 리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김숙자 선생

장도빈 선생의 부인 김숙자 선생은 1894년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났다. 김숙자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될 정도로 나라를 사랑한 부친 김준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김숙자 선생의 동생 김응원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동제'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의열단에 몸담고 조선총독부 대관(大官)을 암살하려 했던 독립운동가였다.



김숙자 선생의 이화학당 중등과 졸업 당시 모습
[출처: 고려학술문화재단 제공]

김숙자 선생은 선각자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1912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고향 승덕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후 다시 서울로 상경해 경성여고보 3학년으로 편입했다. 경성여고보는 19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관립 여학교인 한성고등여학교의 후신으로 집안이 좋거나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는 명문 학교였다.

그러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경성여고보는 일제에 협력하는 한국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대부분 교사를 일본인으로 채워 운영했지만, 한국 여학생들의 민족의식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3·1운동 당시 300여 명의 전교생 중 42명이 비밀조직에 가담해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 당시 김숙자 선생은 25세의 만학도였지만,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만세운동에 나섰다. 다른 사람이 모두 곤히 잠든 시간에 학우들과 함께 300여 장의 태극기를 직접 그려 제작하던 김숙자 선생은 3·1운동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빨리 탑골공원으로 달려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32명의 경성여고보 학생들이 일제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남은 기숙생 70명 전원은 새벽 몰래 탈출해 3월 5일 2차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만세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일본에 의해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자 김숙자 선생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이자, 독립을 위해 심신을 바치기로 약속한 동생이요, 존경하는 인생 선배이기도 한 장도빈 선생을 만나 결혼한다. 훗날 장도빈 선생과 김숙자 선생의 아들은 “서른세 살이던 아버지와 스물여덟 살인 어머니가 결혼하게 된 것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둘의 만남은 사랑을 초월한 인연이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옥고를 치르며 독립을 염원하다

김숙자 선생은 아이를 갖고서도 독립된 나라를 되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성 비밀 독립운동 조직인 대한애국부인회 평북조직책으로 활약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일을 하는 만큼 독립운동이 발각되면 매우 큰 고초를 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숙자 선생에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배 속 아이조차 독립에 대한 열망을 멈출 수 없었다.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내던 김숙자 선생은 1921년 5월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만다. 당시 「매일신보」는 ‘여자 정치범 검거, 독립운동 거괴(居魁)

김숙자 선생 열심으로 운동하다가 잡혔다’라는 제목 아래 기사를 냈다. ‘경성 누하동에 사는 김숙자 선생은 일찍 상당한 지식도 닦았다. 수년 전 영변군 승덕학교 교사로 초빙돼 열심히 교육에 정진했다. 평양 선교사와 의논해 조선부인 1만 명의 연명서와 취지서 짓기를 맡았다. 거액의 돈을 모집해 평양 선교사 모씨에게 주었던 바, 그 선교사는 그간에 또한 정치범으로 검거돼 지금 옥중에서 신음하고 있다. 김숙자 선생은 오히려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자못 암중비약을 계속하다 경찰에 검거됐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을 때 김숙자 선생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일로 수감 생활을 마친 김숙자 선생은 이후 교사로서 민족정신을 가르치는 데 성의를 다했다. 더불어 남편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그렇듯, 김숙자 선생의 남아 있는 행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김숙자 선생의 업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㊀



「매일신보」
1921년 6월 24일 보도자료
[출처: 고려학술문화재단 제공]



김숙자 선생
[출처: 중앙일보]

그 시절 학교와 마을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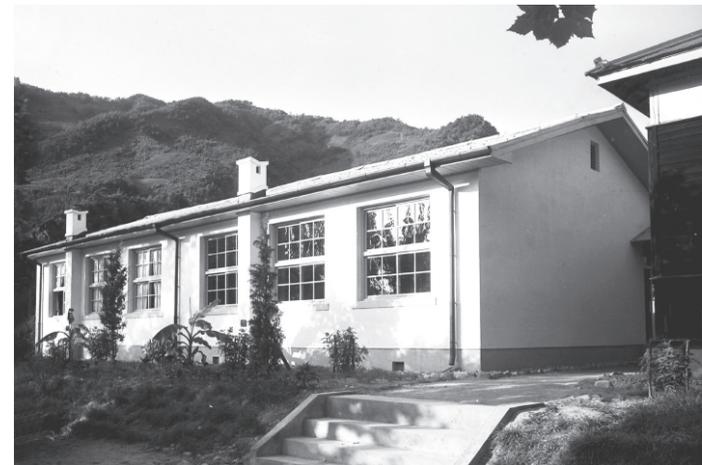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로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건물도 작고 교실 수도 적어 소박했던 시골 학교에 비해 서울 도심의 학교는 운동장도, 학교 건물도 크고 학생 수도 많았다. 도심의 뒷산에는 7~8부 능선까지 판잣집이 들어섰고 개울가 빈 자리엔 허술한 임시주택들이 자리했다. 판잣집에서 혹독한 겨울 추위를 나려면 연탄을 짊어지고 좁은 비탈길을 한참 올라야 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향학열만은 뜨거웠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피땀을 흘려가며 일했고, 아이들의 교육에는 헌신적이었다. 이때의 노력들이 모여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㉔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 도심의 학교 건물과 주변 모습

(1969 서울안산초)
학교 건물 바로 뒤로 인왕산 중턱까지 꼭 들어선 판잣집이 보인다.



○ 한적한 시골 학교 (1968 충주명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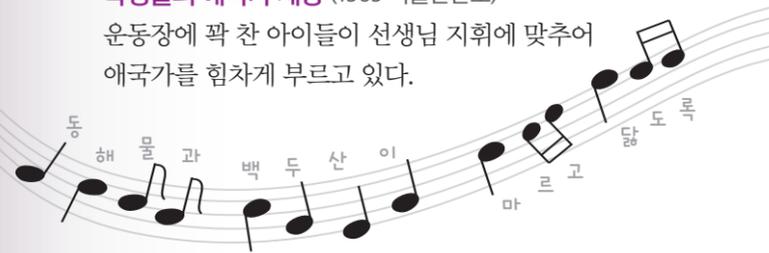
전교생이 5~60명인 작은 규모의 학교. 두 개의 교실에서 전교생이 복식 수업*을 진행했다.

*복식 수업 : 학생 수가 적어 여러 학년의 수업을 한 명의 담임 교사가 시간을 나누어서 교육하는 수업 방식



○ 학생들의 애국가 제창 (1969 서울안산초)

운동장에 꽂 찬 아이들이 선생님 지휘에 맞추어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 흥제동 비탈진 언덕길

(1969 흥제동)
리어카도 다닐 수 없는 비탈진 좁은 골목길은 주민은 물론 물지게와 연탄지게가 함께 오르는 통행로이자, 아이들의 통학로였다.



○ 신사임당과 율곡 동상 주변 청소하기

(1971 서울사직공원)
매월 1일과 15일, 새마을을 청소하는 날 서울매동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공원의 동상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댁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내 안의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노트 쓰기'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이재영 교수

자기 안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일, 자기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자기 밖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이재영 교수에게 '노트 쓰기'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이다. 작은 공책일수록 더 좋다. 생각의 흐름을 손으로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다 보면 자신과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오래 간과해 온 부분이다. 그가 우리를 안내한다. 잊고 지내던 노트를 타고, 미처 몰랐던 세계로 간다.

글 박미경 / 사진 성민하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자신을 대면하는 가장 좋은 방식, 글쓰기

한동대학교 뉴턴홀 뒤편에는 이재영 교수가 판 연못이 있다. 연구실 밖 빈터에 온갖 생명이 깃드는 우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절이 오가는 것을 그는 기쁘게 보고 듣고 느낀다. 연구실 바깥에 '못'이 있다면, 연구실 안에는 '숲'이 있다. 바로 노트의 숲이다. 손바닥보다 작은 무선 수첩부터 A4 크기의 스프링 노트까지, 이미 다 썼거나 아직 쓰고 있는 노트가 곳곳에 있다. 얼핏 어수선했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질서정연하다. 그의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깨달음이 각각의 노트 속에서 '따로 또 같이' 꽃으로 피어난다. 덕분에 그의 연구실에는 그만의 봄날이 흐르고 있다.

“다 쓴 노트 몇 권을 묶으면 그게 그대로 책이 돼요. 손 글씨로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이 흐르는 대로’ 문장을 이어간다는 걸 뜻해요. 디지털기기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한 권의 책을 ‘뚝딱’ 쓸 수 있게 된 건 역설적으로 단 한 줄의 글도 써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과학자의 길을 걷던 그는 1996년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온 뒤 약 3년간 여러 일에 개입하며 과학자의 본분인 연구와 멀어졌다. 그러다 다시 시작하려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불안과 우울과 절망이 차례로 밀려왔다. 자각 없는 교수라는 생각에 매일 밤 울며 잠들었다.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핀 5월 어느 날이었어요. 축제가 한창이던 그때 생을 마감할 결심을 하고,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어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생의 첫 기억부터 써 내려가는데, 마치 손이 스스로 알아서 쓰는 것처럼 글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사흘 밤낮 동안 A4 70페이지 분량의 글을 썼어요. 다 쓰고 나니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파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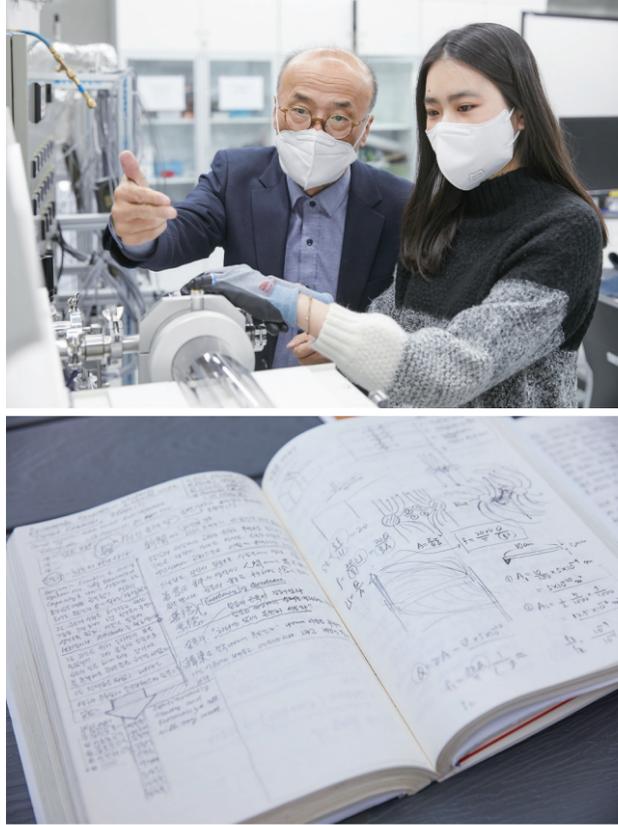
그는 한숨 자고 일어나 오일장에 갔다. 거기서 갇힌 팔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봤다. 그 순간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는 믿게 됐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글쓰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글은 노트에 손으로 쓸 때 가장 크게 효능이 발휘된다는 것을. 홀린 듯이 글로 토해내고 훗날 다시 읽어보면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진다. 치유도 성장도 성장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다.



자기만의 천재성을 열어주는 노트 쓰기 방법

“그때부터 글을 한꺼번에 몰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어요. 생각의 흐름을 손이 바빠 따라가는 축복이 마침내 제게 온 거예요.”

노트 덕분에 죽다 살아난 그가 노트의 힘을 더욱 믿게 된 건 천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면서다. 평소 ‘천재’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는 그들의 궤적을 따라가다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천재들의 ‘지속력’이 노트 쓰기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됐다. 다양한 직업군의 연사(演士)가 모여 각자의 생각을 설파하던 17세기 유럽의 살롱에는 저마다의 무기를 적은 ‘비망록’이 있었고, 과학 만능 시대였던 18-19세기 천재들



에게는 자기만의 탐구 과정을 기록한 ‘연구 노트’가 있었다. 천재란 무엇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인물인데, 천재와 시대 사이에 노트가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탁월함에 이르는 노트의 비밀」 「노트 품격」 같은 저서가 그렇게 탄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존 로크, 이마누엘 칸트, 오노레 드 발자크... 하나같이 노트가 만들어낸 천재들이예요. 원래부터 천재가 아니라 노트 덕분에 천재가 된 겁니다. 노트 쓰기는 자기 안의 천재성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든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노트에, 정자체로, 단숨에 써 내려가기

우리 안의 천재를 꺼내기 위한 노트 쓰기 팁으로 이재영 교수는 다음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정자체’로 쓰는 것이다. 생각이 폭주할수록 천천히 또박또박 써야 자신을 뛰어넘는 글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문장으로 글을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주어와 술어가 분명한 ‘완성형 문장’으로 써야 훗날 글을 쓸 당시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까닭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쓴 노트를 꼭 다시 읽어보는 것이다. 쓴 것을 다시 읽으면 그 위로 새로운 생각이 덧입혀진다고 그는 믿는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초월하면 천재가 된다. 노트 쓰기가 천재를 탄생시키는 비결이다.

“세 번째는 노트를 펴자마자 전체 글의 20%를 단숨에 쓰는 거예요. 멋진 몇 문장으로 멈추지 말고, 거친 문장을 쭉 이어 써보는 겁니다. 글이 거칠수록 제대로 몰입했다는 증거예요. 대부분 천재는 노트의 처음 20%를 걱정적으로 쓴 사람들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는 크기가 ‘작은’ 노트를 쓸 것을 권장한다. 조그만 수첩에 쓸수록 더 좁고 더 깊게 사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작은 노트의 장점은 그 외에도 많다. 한 권을 금방 채울 수 있어 성취감을 쉽게 느끼게 되고, 휴대하기 간편해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생각을 기록할 수 있다. 집중력도 더 쉽게 생긴다. 작지만 큰 수첩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 쉬는 셈이다.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는 '파워엑스랩'의 제자들과 함께 직접 작성한 노트를 들고 있다.



노트에서 발견하는 나만의 '우주', 기다리는 지혜

“노트 쓰기가 교육에도 적용되길 바라요. 학생들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 참된 교육이라 보는데, 현재의 우리 교육은 기존의 지식을 ‘지어넣는’ 교육에 머물고 있어요. 가령 객관식 시험문제 안에는 답이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일까 싶어요. 해답은 글쓰기 교육에 있다고 믿어요. 글을 써보지 않으면 판단은 곧잘 해도 생각은 깊이 못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그는 글쓰기 교육의 부재와도 연관 지어 생각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트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를... 그 소망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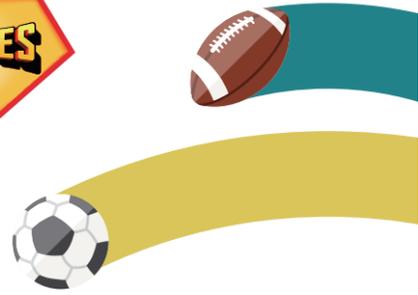
그는 소위 말하는 ‘융합형’ 인재다. 청소년기엔 백일장에서 몇 번 장원을 했고, 대학 시절에는 시 문학지에 시 두 편을 실기도 했다.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 교수와 포스코 석좌교수로 지내며 제자들과 미래 에너지 개발에 힘써 온 이후에도 산문집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말의 사람 글의 사람」과 SF 소설 「지적 거인」 등을 펴내며 이과와 문과의 양날개로 세상과 소통해 왔다. 노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쑥스럽지만, 제가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이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갑자기 수학을 잘하기 시작해, 뒤늦게 폭발적으로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 내신이 좋지 못했고, 학력고사와 본고사 덕에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 경우를 돌아보면,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너무 일차원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저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요. 학생들이 잠재력을 스스로 꺼낼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이 그는 늘 궁금하다. 그러니 자꾸 노트를 든다. 고속열차를 타고 출장 갈 때도, 길을 걸거나 밥을 먹다가도, 문득 멈춰 서서 메모한다. 자기다운 노트를 타고 자기만의 ‘우주’를 오늘도 유쾌하게 유영한다. ㉞



모두가 즐기는 학교 체육을 꿈꾸며 '체육 히어로'가 출동합니다!



여자교사체육교육공동체 '원더티처' 전해림 교사(덕성여자고등학교)와 홍유진 교사(당곡중학교)

언젠가부터 체육 시간이 달라졌다. 운동신경을 타고난 몇 명 아이가 분위기를 주도하던 시절과 달리, 새로운 규칙에 따라 누구든 한 번쯤은 운동장의 주역이 되어본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는 '즐거운 체육 시간'을 경험해 본 일이 드물다. 교사가 즐거워 학생들이 더 즐거운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여자교사체육교육공동체 '원더티처(wonder-teacher)'가 나섰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여학생은 체육을 싫어한다고? 해보니까 달라요

학창 시절부터 운동장을 뛰며 축구하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전교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우리 학교에 없으면 다른 학교에서 찾아보면 되지!' 싶어 직접 경기를 주선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여자축구 대회까지 만들었다. 덕성여자고등학교 전해림 교사와 당곡중학교 홍유진 교사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계기는 이리했다. '축구하기' 좋아하던 여학생들은 '체육 선생님'이 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체육을 좋아하고 즐기던 마음과 실제 교육 현장은 달랐다.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체육 활동의 변방에 있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친구들이 축구를 안 해서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보니 운동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단지 성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남학생 중에도 운동을 싫어하는 친구가 많아요. 여학생 중에도 체육 시간만 되면 '저 못해요'라며 손사래를 치던 아이가 나중에는 '체육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해림 교사의 말이다.

전해림·홍유진 교사는 적어도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길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더불어 체육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교사들부터 체육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스포츠를 그 자체로 즐기면 운동을 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체육이 재미있어지니 잘하고 싶은 의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교사가 모든 종목의 마스터가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체육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체육교육,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

전해림·홍유진 교사는 체육 수업이 재미있어지려면 교사들부터 체육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해림 교사는 "최근 학교 현장의 체육 수업은 과거와 다르다"며 "다양한 뉴 스포츠가 도입된 지금은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아도 모두가 경기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전한다. 하지만 과거 교육과정에 따라 체육 시간을



들체(돌아온 체육시간)클래스 단체 사진(추크볼)



들체클래스(댄스)

보낸 교사들은 정작 체육 수업을 즐겨본 추억이 드물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여성 체육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은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체육 과목만큼은 성비가 반대다. 전해림 교사는 "2015년 초임 교사 발령을 받고 학교에 갔을 때도 체육교과에서 여자는 혼자였고, 주변 학교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 고경력 교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후로도 학교 안에서 동료 여성 교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2018년에 임용된 홍유진 교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직 연차가 낮은 여성 체육교사로서 느끼는 고민을 나눌 동료도 더 절실했다. 새로운 종목을 이수하려고 해도 연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잦았다. 종목 연수를 가더라도 남녀 교사가 함께 교육받는 실기 연수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웠다. 축구를 하면 남성 교사가 공격하고, 농구를 하면 경기 정원 외 인원인 '깍두기'로 참여해야 할 때가 많았다. 배워야 하는 내용을 다 배우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연수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스포츠 기술이 아닌 단체 수업에 적용할 교육적 요소이기에, 개인지도로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학교 체육 현장의 변화를 꿈꾸는 전국 여성 히어로들

그러다 2022년 1월에 여성 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농구 연수를 통해 비슷한 고충과 갈망을 지닌 동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그해 2월, 홍유진 교사와 전해림 교사가 공동대표로 나서 여자교사체육공동체 '윈더티처'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윈더티처는 학교 체육 현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교원과 전문직들의 화합과 연대를 꿈꾸며 결성한 여성 교사들의 체육공동체다. 윈더티처가 출범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회원 신청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윈더티처가 '여자 체육교사 공동체'가 아닌 '여자 교사 체육교육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윈더티처에는 체육 교사뿐만 아니라 체육을 가르치고 관심 있는 교사들과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학교체육의 변화를 응원하는 회원들이 공존한다.

처음 계획은 그해 연말까지 회원 100명 모집과 연수 6회 개최였다. 하지만 이 목표는 출범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달성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회원 수는 약 160명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한 종목 연수 역시 20회를 넘겼다. 체육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도



돌체클래스(태그럭비)



제1회 윈더티처 체육대회



쏟아졌다. 실제로 매주 축구 및 농구 등 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격주에 한 번씩 댄스 연수도 이어지고 있다.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욕도 솟지만, 동시에 다음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의식도 생겼다. 홍유진 교사는 “지금도 수시로 목표가 바뀐다”라고 말한다.

“활동을 몇 년 동안 해봐야 우리만의 색깔이 생기고 장기적인 계획도 생길 텐데, 기대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단기간에 공동체가 급성장했어요. 당장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부지런히 현재에 집중하면서 앞날을 개척해나가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체육 수업이 일으킨 운동장의 변화

체육 수업의 변화는 학생들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홍유진 교사가 근무하는 당곡중학교에서는 점심시간이면 축구공을 든 여학생과 남학생이 먼저 골대를 차지하려고 눈치작전을 벌이기도 한다. 전해림 교사 역시 덕성여고에서 진행한 축구 학급 대항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아침에 운동했더니 1교시 수업에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아침 체육 시간에 나오는 학생이 늘었다”라고 전한다. 한편 홍유진 교사는 이날 오전에도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인솔해 소규모 축구 대회에 다녀왔다. “축구 대회 출전이 평생소원”이었다는 한 학생이 “선생님 덕분에 소원 성취했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일 때면 개인 시간을

들여 학생들과 함께한 주말이 전혀 아깝지 않다.

“저는 놀이와 공부가 모두 ‘배움’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체육 하면 ‘공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조건 외우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소통하며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강점과 취향을 발견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홍유진 교사는 체육 시간이 “실패하고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두 교사에게 윈더티처는 이런 신체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교사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곳이다. 전해림 교사는 윈더티처의 강점을 ‘끊임없는 소통’으로 꼽으며 “윈더티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교육 현장에서 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한다. “교사마다 수업 진행 방식은 다릅니다.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에 바로 적용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마다 커리큘럼을 발전시켜 나가요. 한두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임이었다면 쉽게 지쳤겠지만, 공동체로서 열정을 갖고 교류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현재 윈더티처는 공동대표인 두 교사를 포함해 ‘히어로’라고 불리는 6명의 운영진을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전국에 더 많은 히어로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두 교사는 누구나 윈더티처의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지닌 작은 불씨가 전국 각처에 숨은 히어로의 마음속에 큰 열정으로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씩씩 도전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돌체클래스 단체사진(얼티미트)

수능 성적에 상처받은 부모와 자녀의 무거운 갈등 자녀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대화'가 우선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기대 이하의 점수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간 쏟아부은 돈과 정성 그리고 마음고생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실망감에 부모는 할 말을 잃고 자녀는 '대역죄인'이 됩니다. 진학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고 재수를 준비하자니 그동안의 자녀와 씨름하며 힘겨웠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자녀에게 모진 말을 던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대학 입학 시즌을 앞두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의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학업·진학·성적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것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죠. 부모의 욕심으로 영동하게 시간 낭비를 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글 박재원 부모 교육 전문가



진학 실패 후 더 큰 혼란을 겪는 것은 자녀 자신

이맘때쯤이면 재수학원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이끌려 학원 상담실에 앉아 있는 예비 재수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 표정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고 엄마는 분을 삭이고 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는 화가 묻어있고 아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와 단들이 충고나 조언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한 끝에 듣게 되는 이야기는 아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원래 역사 공부가 재미있었는데 하기 싫은 수학 공부만 시켜서 대충 하는 시늉만 했어요.”, “처음에는 대들기도 하고 학원 땡땡이도 치고 했지만, 점점 저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한 명, 한 명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처럼 분노하며 부모의 마음을 뒤집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떨치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입니다. 상담 끝에는 “저도 성적 잘 받아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속상해요.”라고 아이들이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자녀는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부모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혼란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해결하기보다 강점을 살리려는 노력이 우선

자기 능력 부족으로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부모의 우려 섞인 생각으로 무리해서라도 사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경제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사교육을 시켰지만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 혹시 아이의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 수 있죠.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영역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시험 공부와 성적 경쟁에 조금 불리한 아이일 수 있다고 한발 물러나 생각한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좀 더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입시 성공보다 중요한 자녀 마음에 힘을 주기

성적이나 불성실하고 엇나가는 모습에만 주목했다면 앞으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입시 전쟁에서 승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이의 진심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승자가 되지 못한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보다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키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항상 아이를 응원하고 있고 가족 모두가 한팀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언행이나 성적 같은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은 순풍을 만날 겁니다. 좋은 부모도, 나쁜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소망하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실행이 어렵다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기분을 알려줄 수 있을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등과 같은 질문으로 자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을 시작해볼길 바랍니다. ㊦



하늘 높이 더 멀리 아이들의 꿈을 하늘로 띄웁니다

드론 교육 자원봉사자 김해충 회원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고 태어난다. 그리고 자라면서 교육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날개를 펴고 나는 법을 깨닫는다. 김해충 회원은 드론을 통해 아이들의 날갯짓을 돕는다. 드론이 멀리 날수록 아이들의 시야는 넓어지고, 높이 날수록 아이들의 꿈은 더 크게 자란다.

글 이성미 / 사진 성민하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육 봉사를 놓지 않겠다는 다짐

“위잉~” 드론을 바닥에 내려놓고 조종기 버튼을 누른다. 드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오르더니 방향과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바꾼다. 사람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기도 한다. 흥분을 감출 수 없다는 듯 아이의 발꿈치가 들쭉거린다. 붙잡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하다. 조금 전까지 강당에 별러던 드러눕던 개구쟁이는 온데 간데없다. 장난꾸러기도, 소심한 아이도 드론을 조종할 때만 큼은 모두가 프로 못지않다. 아이가 저마다 숨쉴 뻔할 때, 묵묵히 뒤에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도해 주는 어른도 있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자원봉사단 김해충 회원이다. 김해충 회원은 1977년 9월 서울 도곡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2019년 8월 서울 잠일초등학교에서 퇴직했다. 교직에 있는 동안 김해충 회원이 특히 관심을 둔 것은 미래 교육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와 장학관으로 일할 때도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힘썼다. 또 한편으로는 “퇴직 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보탬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그 바람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드론이었다.

“퇴직 무렵 친구를 통해 드론을 처음 접했어요. 친구가 취미로 드론 축구를 했거든요. 신선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드론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항공우주, 운송, 군수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드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잠일초등학교 교장일 때 운동장에서 드론을 띄우면 학생들이 엄

청나게 좋아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퇴직 후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관련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며 역량을 쌓았습니다.”

취미로 삼는 것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훨씬 뛰어난 실력과 내공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김해충 회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던 탓에 전문가 수준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특히 드론이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게 하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김해충 회원은 포기하지 않았고, 네 번의 시도 끝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바라던 대로 드론은 그를 ‘교육’과 ‘봉사’라는 목적지에 안착시켜주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인생 교육이자 창의 교육

교직에 있을 때부터 굿네이버스 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봉사에 뜻을 두었던 김해충 회원도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자원봉사단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교육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처음 드론 조종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 힘들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교직에서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제게는 드론이 있었습니다. 드론 조종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궤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한 아이도 드론을 조종하면서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드론 축구는 선수들이 각자 공격과 방어를 맡아 협동하며 즐기는 게임입니다. 협동심을 길러주기에 좋죠. 즉 드론 수업은 단순히 놀이가 아닌 인성 교육이자 창의 교육입니다.”

공들여 준비한 수업에 한 뼨씩 커가는 아이들

드론 교육의 효과는 드론 축구를 할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드론 축구란 말 그대로 공중에서 드론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다. 선수들은 지름 40cm, 무게 1kg가량의 드론 볼을 조종해 도넛 모양의 상대 골문에 넣어 점수를 얻는다. 아이들이 쓰는 유소년 경기용 드론 볼은 그보다 조금 더 작다. 경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실제 축구 경기처럼 각자의 포지션에 맞춰 공격과 수비를 펼친다. 여러 대의 드론이 서로 견제하고 엉기면서 공중에서 각축전을 벌인다. 드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머리를 감싸 쥐는 아이, 골을 넣고는 폴짝 뛰며 세리머니를 하는 아이,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경기할 때만큼은 다 같은 선수다. 서로 격려하고 또 협동하며 아이들의 마음은 찰나에도 한 뼨씩 자란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 김해충 회원은 굿네이버스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성북청소년센터 등에서도 아이들에게 드론 축구를 가르치고 있다.

또 놀라운 것은 드론 교육에 사용하는 장비를 모두 김해충 회원이 사비를 털어 준비한다는 점이다.

“드론 수업에 드론 볼 5개, 배터리 25개를 준비해 와요. 드론 한 대 날릴 때 배터리를 5개 정도 쓰거든요. 드론 볼은 각 10만 원이 넘고, 배터리는 1만 원이니 꽤 큰 돈이 들었죠.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낄 수 없었어요. 배터리 하나에 겨우 5분 정도만 드론을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드론을 원하는 만큼 만질 수 없죠. 드론이 부족해도 오래 기다려야 할 테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지루하면 누가 수업에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 제가 고민하고 보완해야죠.”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동력도 필요하다. 배터리 하나를 완충하는 데 40~50분이 걸리는데, 무려 25개를 충전해야 한다. 당연히 배터리 충전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수업 초반에는 조종이 미숙한 아이들이 드론 볼을 잘 떨어뜨렸다. 깨지고 부서진 드론을 집에 가져와 고치는 것도 김해충 회원의 몫.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가도 수업은 금방 끝난다. 누군가는 허무를 느낄 수 있지만, 김해충 회원은 모든 교육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짧은 시간에 응축해 보여주는 일, 그 수고를 그는 40년 넘게 해왔다.

봉사를 통해 재발견한 진정한 가르침의 행복

김해충 회원도 드론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 처음 드론의 세계로 그를 이끈 드론 축구 모임 ‘위드드론’과 서울시50플러스센터 드론 축구 모임에서 선수로 뛰면서 김해충 회원은 ‘드론 축구 전도사’라는 꿈을 키우고 있다.

“2025년 전북 전주시에서 월드컵드론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드론 축구는 우리나라가 중주국이고, 전주가 메카죠. 대회를 대비하며 저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요. 선수로서 실력도 키우고 있고요. 드론 촬영과 영상편집 기법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또 서울새활용플라자에 협동조합을 세워 조합원들과 드론에 관해 공부하고 연수도 합니다. 여기에는 식물 재배, 약초 관리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부터 식물 재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퇴직 후 현직에 있을 때만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김해충 회원은 시니어 자원봉사단으로서도 계속 활동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봉사 현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은 멈출 수 없다. 김해충 회원은 퇴직 교직원들에게 교육 봉사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

“교장과 장학사, 장학관 등을 거치며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실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일부 통계가 말해주지만, 교사와 학생의 생생한 반응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 후 드론과 체육 수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직접 가르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진짜 교사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물론 손 가는 일도, 개척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오히려 초임 교사 시절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뿌듯함도 크게 느끼고요. 많은 퇴직 교직원이 이런 기쁨을 알면 좋겠어요.” 학교 안에서 교육 외 업무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했던 것과 달리, 퇴직 후에는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 오롯이 아이만 생각할 수 있다.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 그것이 교육 봉사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 어디든 갈 수 있는 드론처럼, 교실 밖으로 나온 김해충 회원은 세상 어디로든 교육을 위해 갈 수 있다. 2023년에는 김해충 회원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시니어 자원봉사단의 비행거리가 더욱더 길어지길 바라본다.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세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한겨울 속 반짝이는 산골 마을 마법처럼 아름다운 얼음 왕국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깊어져 가는 겨울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실내에서 벗어나 얼어붙은 순백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겨울 한복판, 보석처럼 반짝이는 얼음 왕국 청양으로 떠나는 여정은 어쩌면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해 줄지 모를 일이다. 청양 알프스마을로 마법에 빠진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러 떠난다.

글/사진 우인재 여행작가 / 사진 제공 청양군청

우인재 작가는 10여 년간 출판사에서 여행 콘텐츠 기획 및 취재를 담당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 가이드북 로스앤젤레스 편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외환은행 등 보험·금융사 고객용 여행 가이드북을 기획 및 제작했다. 또 월간 「DOVE」, 「모터트렌드」 등의 매체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롯데백화점, 조달청, 롯데제이티브, LS전선 등 기업체 사보에 여행, 드라이브 원고를 기고했다.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청양군 천정호

충남의 알프스에서 맞이하는 겨울

오대산에서 뻗어 나온 차령산맥이 기호지방을 가로질러 서쪽 바다로 나가기 전 빗어놓은 칠갑산(七甲山)은 고대 백제인들이 진산으로 여겨 제천의식을 행하던 장소였다. 만물을 생성하는 7대 근원을 뜻하는 '칠(七)'과 짝이 난다는 의미를 담은 '갑(甲)'을 묶어 '생명이 시작되는 원천'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 다른 한편으로는 일곱 장수가 나올 장소라고 해 칠갑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칠갑산은 해발 561m로 고봉준령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대덕봉, 명덕봉, 전혜산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대치천, 장곡천, 인화달천 등 골골이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수려한 풍경도 보여준다. 칠갑산은 아름다운 만큼 험해서 '충남의 알프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덕분에 1973년 일찌감치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 한가운데 솟아오른 이 영험한 산자락에는 청양고추의 고장 청양군이 자리 잡고 있다. 매운 고추의 대명사인 청양고추가 청양군의 대표 농산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러나 최근 청양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칠갑산 기슭에 있는 소읍 천장리가 눈과 얼음을 테마로 하는 '알프스마을'로 탈바꿈하면서부터다.

얼어붙은 순백의 왕국에서 동화 속 주인공을 만나다

공공 얼어붙어 보석처럼 빛나는 얼음 분수와 새하얀 눈으로 깎아 빗은 조각상은 겨울 동안 이 작은 마을을 얼음 왕국으로 변모시킨다. 썰매와 봅슬레이를 체험하는 아이들의 두 뺨은 찬 바람에 빨갛게 되어버렸지만,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동심은 거침없이 얼음관을 가르며 겨울을 이겨낸다. 신나게 놀다가 허기질 때 쯤이면 군밤과 군고구마, 군옥수수과 빙어튀김 등 시골 정취 가득한 군것질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밤이 찾아오면 알프스마을은 오색 조명의 마법으로 더욱 화려해진다. 얼음 벽돌과 눈으로 만든 커다란 조각상들이 빨주노초파남보의 화려한 무지갯빛 조명을 받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축제 행사장 곳곳을 거닐다 보면 마치 어디선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와 안나, 올라프가 노래를 부르며 튀어나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다.

청양에서도 산골로 꼽히는 천장리는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하늘 천(天)' 자를 넣어 지어진 이름이다. 청양군의 다른 지역처럼 농사로 먹고사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던 천장리는 지난 2005년 도농교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제1회 칠갑산얼음분수축제가 개최된 이후 천장리는 청양군에서 가장 많은 외지인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싹을 틔우게 된다. 물론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관광객 수가 급감한 적도 있지만 1년 뒤인 2021년에는 얼음분수축제 기간에만 7만 명이 넘게 방문하면서 또 한 번 알프스마을의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천장리 알프스마을은 충청남도 130여 곳의 체험 마을 중 유일한 '으뜸촌'으로 지정받았다.

아찔한 출렁다리에서 감상하는 천장호 비경

칠갑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하는 천장리에는 청양군이 보유한 또 하나의 명물인 천장호 출렁다리가 있다. 2017년 개장한 천장호 출렁다리는 당시 국내 최장 길이(207m) 출렁



천장호 출렁다리 야경

다리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등 경관시설을 조성하면서 현재는 다른 출렁다리에 기록을 넘겨주었지만, 청양의 상징인 고추(청양고추)와 구기자 모양의 주탑, 아름다운 천장호 풍경으로 개통 3개월 만에 25만 명이나 방문했다. 몇 해 전에는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자들이 천장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동안 눈앞에 펼쳐지는 천장호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선사하는데, 공공 얼어붙은 호수가 새하얀 눈으로 덮이는 겨울철에는 환상적인 설경을 선보인다. 또 금요일과 주말 밤에는 야간 조명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으므로 알프스마을 얼음 분수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나서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

천장호 출렁다리에는 방문객들이 꼭 한 번 들러 인증사진을 남기는 황룡과 호랑이 동상이 있다. 이 동상은 몸이 아픈 아이를 위해 승전을 포기하고 자기 몸으로 다리를 놓아 아이가 의원에 갈 수 있게 해주었던 용과 그에 감명받아 이 지역의 영물이 되어 주민들을 보살폈다는 칠갑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칠갑산에 밤이 오면 떠나는 반짝반짝 별자리 여행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양은 별을 관측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지닌 곳이다. 특히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에서라면 황소

자리, 쌍둥이자리, 오리온자리, 큰개자리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상징하는 동물인 토끼자리 등 겨울철 별자리들을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칠갑산 중턱에 자리 잡은 칠갑산천문대 스타파크는 국내 유일의 도립공원에 자리한 천문대로 독일산 304mm 대형 굴절망원경을 비롯해 다양한 소형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자리와 행성, 성운 등 우주의 다채로운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또한 플라네타륨(Planetarium)이라 불리는 고화질 천체투영기를 통해 돔 형태의 커다란 스크린에서 입체적인 우주 영상을 볼 수 있어 흐린 날에도 방문하기 좋다. 3D 안경을 쓰고 감상하는 입체 영상도 마련되어 있으며, 시즌별로 일어나는 천문 현상에 맞춰 진행되는 이벤트와 다채로운 천문우주



칠갑산천문대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사방이 탁 트인 천문대의 위치 덕분에 칠갑산과 어우러진 충남 알프스의 수려한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누구라도 산책하고 싶은 조붓한 천년 고찰



청양으로 떠난 여정의 끝은 칠갑산 서쪽 통일신라 시대 지어진 고찰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칠갑산 서쪽 자락의 아늑한 골짜기에 들어앉은 장곡사는 신라 문성왕 때인 850년, 보조선사 체징(體澄)이 창건한 천년 고찰로 유구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현재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다. 장곡사는 전각이 모두 10여 채에 불과한 아담한 절이지만 국보와 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대웅전이 있는 보기 드문 사찰이다. 보물 제162호 상대웅전, 보물 제181호 하대웅전을 비롯해 국보 제58호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국보 제300호 미륵불괘불탱, 보물 제174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및 석조대좌, 보물 제337호 금동약사여래좌상 등 보유 문화재를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울 정도다. 두 대웅전은 건립 시기는 물론 바라보고 있는 방향도 다르다. 고려시대 건축기법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상대웅전은 동남쪽, 조선시대 중기에 지어 올린 하대웅전은 서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사찰자들은 이 사찰이 과거 두 사찰로 분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겨울의 고요에 잠겨 있는 조붓한 산사의 분위기가 아닐까. 눈이라도 쏟아지는 날에는 사그락사그락 새하얀 눈송이가 쌓이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올 것 같다. 외지인의 발길이 뜸해지는 겨울은 이토록 아담한 절집의 뜨락을 거닐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계절이다. 졸음에 겨운 동자승의 눈꺼풀이 감기듯 칠갑산 자락의 겨울이 깊어만 간다. ㉞

장곡사 겨울 전경



청양으로 떠나는 식도락 여행 청정한 자연 속 로컬푸드 천국



구기자의 에너지를 가득 담은 한우탕



고추와 함께 청양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꼽히는 구기자는 약재로 쓰일 만큼 몸에 이로운 식물이다. 그 옛날 진시황제가 애타게 찾던 불로초가 사실은 구기자라는 구전이 있을 정도.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집필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기자는 맛이 달콤하고 독이 없어 허약한 몸을 다스리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구기자한우탕은 청양군의 청정한 자연에서 자란 한우 사골에 구기자를 넣어 우려낸 밀 국물로 만든 갈비탕의 일종으로, 깊은 국물 맛과 넉넉한 양이 특징이다. 청양군 비봉면사무소 인근 칠갑산청정한우타운(041-942-9259)에서 구기자한우탕을 비롯해 버섯 불고기전골, 육회비빔밥 등을 맛볼 수 있다. 칠갑산청정한우타운은 지역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라 믿을 만하다.

맑은 바람과 햇살로 차린 농부밥상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생산한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이용해 웰빙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식당이 주목받는 시대다. 청양군 대치면의 칠갑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농부밥상(041-944-0900)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청양 한우 등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농가 레스토랑으로 청양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청양농부밥상, 구기자떡갈비한상 등 주요 메뉴의 이름도 친근한 느낌.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맛맞나지만, 칠갑산도립공원 관문에 해당하는 칠갑저수지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 경관도 아름답다. 식당 1층에는 지역 농산물과 간식거리를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양의 식재료를 구입해 귀가한다면 무엇보다 뜻깊은 기념이 될 것이다.



산사 나들이에 제격 산나물비빔밥



사찰을 둘러보고 나와 맛보는 산나물비빔밥은 항상 큰 만족감을 선사한다.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머위 등 칠갑산 일원에서 채취한 신선한 산나물을 주재료로 만드는 산나물비빔밥의 아삭한 식감은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주기에도 제격이다. 청양 장곡사 가는 길목에는 칠갑산맛집(041-943-5912), 칠갑산골(041-943-7211) 등 산나물비빔밥 전문 식당이 옹기종기 모여 식당가를 형성하고 있다. 식당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르지만 산나물비빔밥은 어느 집을 찾아도 맛볼 수 있으며, 여기에 손두부와 도토리묵을 애피타이저로 곁들이면 점심 식사로 나무랄 데 없는 한 상이 될 것이다.

새해, 새로운 시작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2023년 신년 계획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간인 듯합니다. 일 년을 시작하는 지금,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1년 동안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희망하며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세우는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도록 효과적이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주)다인



지난 1년을 되돌아보기

작년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업무를 수행하며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희열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하며 성취했던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일이 어려웠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직면하면서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알고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며 회복한다면 올 한 해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더 현명하고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감정 해소가 어렵다면, 심리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세우기

다이어트, 운동, 영어 공부와 같이 두루뭉술한 계획보다는 ‘매일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가기’, ‘아침 식사 후 20분 원서 읽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실행하기 어려운 목표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목표를 이뤄야 하는 나만의 동기가 있다면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때 미국 여행 중 박물관에서 영어로 도슨트 듣기, 현지인 추천받아 맛집 찾아가기 등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외에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 맞추기’, ‘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기록하기’와 같은 마음 돌보기를 위한 목표도 좋습니다.



시간 관리해보기

모두에게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가 지루하게만 흐르고, 누군가에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루가 됩니다. 또한, 일을 끝내지 못해 절절매다 닳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집중한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나에게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느꼈다면 일의 중요도와 효율성을 생각해 보고, 나를 위한 시간 또한 일과에 추가해 보세요. 신년 계획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나를 발전시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계획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행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혼자 이루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리고 도움을 받거나 응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과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패한 후 실망하기보다는 현실적이며 달성 가능한 목표와 해결책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해결 방안을 세우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연말에는 분명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나 참 잘 살았다.’라는 마음과 함께 연말에 변화된 모습을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

「The-K 마음심」 이용 안내

- **상담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일반 회원
- **상담 신청**
The-K 마음심 전용 홈페이지(www.ktcu-hue.com)에서 회원 인증(회원 번호, 이름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이용 가능, 전화(080-080-5988)



- **상담 횟수**
2년(22~23년도) 내 개별상담 1인당 5회
집단상담(6인 이내) 4회 무료 이용 가능

- **상담 시간**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

- **상담 방법**
1:1 상담(대면·전화·화상·이메일 상담)
및 집단 상담(6인 이내)

※ 모든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소속기관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상담 내용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음심 홈페이지 ▲



새해 건강 목표, 시작은 '걷기'부터

신년이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다짐한다. 금연, 아침 조깅, 주 5회 헬스 등 야심찬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1년 내내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걷기는 특별한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어린이와 임산부, 중장년층, 환자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준비와 요령은 필요하다. 올바른 자세로 터벅터벅이 아닌 사뿐사뿐하게, 배에 힘을 주고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는 배가 된다. 공기 좋은 산책로를 걷고 나면 기분도 좋아진다. 새해에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보자.

글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법 '걷기'

걷기는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고유 감각을 모두 한 번에 단련할 수 있는 엄청난 동작이다. 걸을 때 우리는 먼저 호흡을 통해 다리에 혈액을 보내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유산소운동이 되며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해 심폐지구력, 혈관 건강, 면역력 등이 증진된다. 또 뇌 혈류가 개선돼 뇌 기능도 활발해진다. 에너지를 얻은 다리는 서 있다가 발을 앞

으로 차면서 전진하는데, 다리를 디딜 때 넘어지지 않도록 무릎 앞쪽 대퇴근이 수축하고, 딛고 나서 균형을 다음 발로 옮기기 위해 엉덩이 근육이 수축한다. 발을 뗄 때는 장딴지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 이 하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다. 걷기를 통해 이 근육들이 계속 단련되면 식욕 조절이 잘되고 혈당 소모도 잘돼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 예방에 유리해진다. 단련된 하체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해 골관절염을 예방·완화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 베일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212명을 대상으로 걷기운동이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걷기운동을 한 사람은 무릎 통증과 안쪽 관절이 손상될 위험이 낮았고, 무릎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심을 잡는 고유 감각도 함양된다. 양발로 걸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균형감각을 익히게 된다. 게다가 밖에서 걸으면 기분도 좋아진다. 햇빛을 받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이 분비돼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걷기운동의 필수 요소는 올바른 자세

걷기운동의 효과를 누리려면 바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불균형한 상태로 걸으면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 관절, 근육 등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걸을 땀 몸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선 다음 복근에 약간 힘을 줘 허리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편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시선은 10~15m 전방을 향한다. 팔은 L자나 V자형으로 구부린 후, 팔꿈치가 옆구리를 살짝 스치도록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다. 이때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발바닥은 뒤쪽부터 앞쪽 순서로 닿아야 하체 근육이 제대로 자극받기 때문에 발을 뒤꿈치부터 중앙, 앞꿈치 순으로 딛는 게 좋다. 보폭은 키의 40% 정도면 된다. 발 모양은 약간 벌어진 11자 형이 적절하다. 8자형은 발목과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오르막길에서는 뒷다리와 상체를 일직선으로 한 채 팔을 흔들어 추진력을 이용해 걸으면 쉽게 지치지 않는다. 내리막길에서는 상체를 수직으로 한 채 뒷발로 균형을 잡고 무릎을 구부린 채 걸어야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한편, 휴대전화를 보며 걸으면 목이 앞으로 나와 등뼈와 허리뼈에 무리가 가므로 휴대전화 사용은 자제한다.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걷기운동의 효과

처음 걷기운동을 시작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강도는 심박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심박수의 75% 정도가 적당하다. 최대심박수는 '220-나이'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걷는 중 심박수는 스마트폰, 스마트 밴드 등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세라면 심박수가 최대심박수 170의 75%인 약 128이 될 정도로 걸으면 된다. 걷기운동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인터벌 걷기운동을 시도해 건강 효과를 높인다. 인터벌 걷기운동은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30분씩 걷는 사람이라면 5분은 평상시 속도로 걷고, 3분은 온몸에 힘을 쥐 빠르게 걷고, 2분은 천천히 걷는 것을 세 번 연속 반복하는 식이다. 빠르게 걸을 땀 뛰지 말아야 하고, 걸으면서 노래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걸으면 근력·심폐지구력·유연성·HDL 콜레스테롤 수치·동맥 탄력도가 높아지고, 수축기 혈압·총콜레스테롤 수치·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빠르게 걸을 때는 부상 방지를 위해 평지에서 걷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터벌 걷기운동을 하고 난 뒤 다리가 매우 아프다면, 먼저 다리 근력을 더 단련해야 한다. 다시 이전 걷기운동으로 돌아가고, 따로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령자, 당뇨병, 심장질환, 관절염 등 중증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라도 무리한 신체 활동은 환자의 건강을 악화할 수 있다.

운동 효과 높이는 팁

걷기운동 효과가 더디다면 껌을 씹으면서 걸어보자. 리듬감으로 빨리 걸을 수 있어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 실제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연구팀이 21~60세 46명에게 한 번은 껌을 씹으며, 한 번은 껌 성분으로 된 가루를 먹으며 15분간 걷게 했더니, 껌을 씹을 때 심박수가 가루를 먹을 때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빠른 박자의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도 효과적으로 운동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탈리아 베로나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19명에게 러닝머신 위를 걷게 하면서 느린 박자(90~110bpm)의 음악과 빠른 박자(170~190bpm)의 음악을 번갈아 듣게 했더니, 빠른 박자 음악을 들을 때 심박수가 확실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껌 씹기와 마찬가지로 빠른 박자에 맞춰 걷는 속도가 빨라져 심박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빠른 음악 같은 자극적인 외부 요인은 자율신경계 중 신체를 흥분시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한다. ☺

롤러코스터와 같은 혼돈의 시대 2023년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2013년 영화 '관상'에서 주인공 관상가로 열연한 송강호 배우는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난 명대사를 던진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소" 후회와 한탄이 섞인 그의 대사는 계속 이어진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정말 명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우리는 매일매일 눈앞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건을 보느라고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는 큰바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많은 경제 현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라면 그 파도를 만드는 건 결국 바람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때문에 자산 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경험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던 그 가격은 급격한 하락을 겪으며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대로 만들어버렸다. 최근의 자산시장을 보면 개별 자산의 종목 특징보다는 경기의 변화라는 큰바람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보아야 할까?

글 김경필 경제 칼럼니스트 겸 작가

경기의 바람을 이해해야 '경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자산관리를 시작하고자 할 때, 먼저 경제를 바라보는 '9개의 창문'을 꼭 보라고 권하고 싶다. 매일 저녁 퇴근하기 전 본인의 다이어리에 아래의 지표를 적어보자.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적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적다 보면 더 찾아보게 되고, 특히 자연스럽게 추세의 변화를 알게 된다.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주요 경제지표 9가지

- 1 미국기준금리 - 통화정책의 중요 지표(FOMC 때마다 체크)
- 2 미국 2년 국채금리 - 시장금리의 변화를 반영(매일 체크)
- 3 미국 10년 국채금리 - 시장의 향후 인플레이션 심리를 반영(매일 체크)
- 4 다우존스, 나스닥 추가 - 미국 주식시장의 반응(매일 체크)
- 5 원/달러 환율 -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반응(매일 체크)
- 6 달러 인덱스 -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주간 단위로 체크)
- 7 주요국 환율 -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의 변화(매일 체크)
- 8 한국 3년 국채금리 - 단기자금시장의 시장금리 변화(매일 체크)
- 9 코스피 지수 - 한국 주식시장의 반응(매일 체크)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투자보다는 현명한 자산 배분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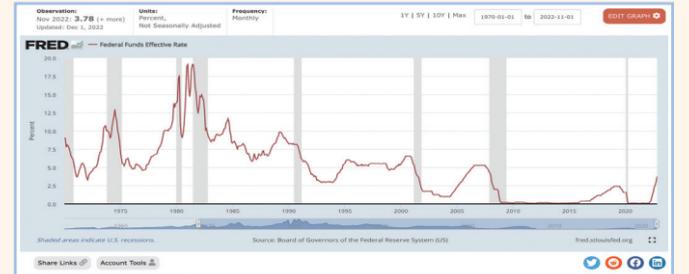
최근 미국과 한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를 훌쩍 넘어섰던 적이 있다. 2%대이던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채권금리는 치솟았다. 기준금리 변화를 선행하는 성격을 가진 채권시장에서 채권금리가 4%를 넘는다는 것은 자본이 한동안 안전 자산으로 대 이동할 것이란 신호다. 이 작은 변화를 매일 적고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시장에서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한다면 위험을 무릅쓴 대가로 더 큰 수익률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주식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4%보다는 두 세배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위험자산은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시장의 이런 변화를 거슬러 투자 한다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하려면 우선 어떤 산업에 또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 달라하나 국채,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관심을 두고 전략적이고 현명한 자산 분배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찾아온 경기침체

미국의 지난 50년간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면 10년 주기로 금리를 크게 인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결국 10년에 한 번꼴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경기과열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경기침체가 찾아왔다(오른쪽 그래프에서 회색 표시 부분이 경기침체 구간).



연방기금실효금리(Federal Fund Effective Rate)
미국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초단기 금리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양적완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너무 낮은 금리의 후폭풍으로 나타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의도적인 경기둔화를 유도하는 과정의 하나로 봐야 한다. 경기를 둔화시켜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2023년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산 가격의 하락은 현금 자산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낮아진 자산을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 순환에 따른 자산 가격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자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고, 부동산은 경기를 동행하며, 성장주는 금리 하락기에, 가치주는 금리 상승기에 올라간다. 이것은 오래된 자산시장의 기본 원리다. 물론 경제 현상은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항상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리와 기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식

경기 변화를 6개월 전에 반영



부동산

경기 변화를 그대로 반영



성장주

경기둔화, 금리인하 시기에 상승



가치주

경기상승, 금리인상 시기에 상승

주식이란 기업의 지금 상태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면 지금의 경제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 시장의 기대감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기 하락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후행하거나 최근에는 동행하는 성격이 짙어졌다. 따라서 실제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주식시장보다 한걸음 늦게 움직이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경제지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경제 기사를 본다면 이러한 자산시장의 변화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을 늘리는 정기예금, 적금과 같은 금리형 기반의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K)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기다리며 요리로 떠나는 지구촌 새해 여행

영국 시인 엘프리드 테니스 경은 새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새해의 문턱에서부터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인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지난해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찬 기분이 들죠. 한국에서는 설이 되면 일가친척이 한데 모여 떡국을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덕담을 나누며 웃어뜰게 세배하곤 합니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에서도 밝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풍습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의 새해 풍습과 대표 요리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글 편집실 / 사진 쿠크



일본

일본에서는 1월 1일을 ‘오쇼가즈(お正月)’라고 부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이 넘어가는 새벽에는 ‘도시코시 소바(年越しそば)’를 먹고, 아침이 되면 ‘하츠모우데(初詣)’라는 새해 첫 신사나 절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이곳에 방문하면 향을 피운 뒤 새전함에 돈을 넣고, 커다란 종에 달린 줄을 흔들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신년 행사가 많이 줄었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연하장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지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집 앞에는 소나무나 대나무를 잘라 다발로 엮어 만든 ‘가도마츠(門松)’를 세우는데,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을 맞이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한국의 세배와 마찬가지로 새해 인사로 만나는 사람에게 세 번의 볼 뽀뽀를 합니다. 새해 첫날 수영복만 입고 차가운 북해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축제’도 열립니다. 무려 140곳 이상의 네덜란드 전역에서 열리고, 5만여 명이 참가할 정도로 대중적이면서도 이색적인 축제입니다. 새해에 열리는 북극곰 수영축제는 지난해에 있었던 나쁜 일을 모두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온 가족이 모여 갓 튀긴 도넛 ‘올리볼런’을 먹으며 한 해의 평안과 행운도 기원한다고 합니다.



스페인

스페인과 멕시코 사람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포도 12알을 한 손에 든 채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립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를 ‘노체비에하(nochevieja)’라고 부르며,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습니다.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열두 번의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한 알씩 먹는데, 이는 1년 열두 달을 뜻하며, 소원 하나마다 포도 한 알을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빈 소원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고, 포도 맛이 시면 그달은 운이 좋지 않고, 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포도를 다 먹고 나면 ‘펠리스 아뇨 누에보(Feliz año nuevo)’라고 외치며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미국

미국 새해 행사의 꽃은 뉴욕시에서 열리는 ‘볼드롭(Ball Drop)’입니다. 가족과 단란하게 모여 행운과 복을 비는 목가적인 행사와는 느낌이 다르지만, 미국인들은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맞춰 많은 사람이 타임스퀘어에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축제를 즐깁니다. 광장 한가운데 43m 높이의 탑 위에 세워진 커다란 공이 새해 카운트다운에 맞춰 천천히 하강하고, 새해가 시작되면 불꽃 축제, 축하 공연 등 각종 이벤트를 즐기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 행사는 1904년 시작된 전통 있는 행사로, 많게는 100만 명 이상 운집한다고 합니다. ㉔



스페인 소고기 스투

스페인은 우리 떡국처럼 새해에 맞춰 챙겨 먹는 음식은 딱히 없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풍성한 재료를 사용한 각종 파티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먹는 메뉴는 양고기스튜인데, 양고기 대신 소고기로 만들어 즐겨 보세요.



• 재료

소고기(사태) 800g, 박력분 밀가루 3큰술, 양파 2개, 다진 토마토 또는 토마토 통조림 1컵, 레드와인 3컵, 물 2컵, 월계수잎 3장, 다진 파슬리 1큰술, 양송이버섯 8개, 마늘 2쪽, 찐 감자 3개, 식용유 4큰술, 휘핑크림 약간,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식용유 4큰술

* 만드는 방법

① 양파는 가능하게 채 썰어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40분 정도 볶아 캐러멜라이징한다.



② 소고기는 큼직하게 자른 뒤 키친타월로 감싸 핏물을 제거하고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한다. 그런 다음 밀가루를 묻혀 뜨겁게 달군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겉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③ 냄비에 ①과 ②를 넣고 토마토 통조림을 으개서 넣은 뒤 레드와인과 물, 마늘, 월계수잎, 다진 파슬리를 넣고 강한 불에 올린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시간 정도 졸여 스투를 만든다.

④ 양송이버섯은 기둥과 겹질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 식용유를 조금 두른 팬에서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해 살짝 볶는다.



⑤ 그릇에 찐 감자를 담고 소고기 스투와 볶은 양송이버섯을 올리고 휘핑크림을 끼얹는다. 다진 파슬리를 조금 뿌리기도 한다.



일본 도시코시 소바

도시코시 소바는 우리말로 '해넘이 국수'라는 뜻인데, 일본에서 한 해를 넘기며 좋은 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소바는 특유의 잘 끊어지는 성질이 있어 '지난 1년의 나쁜 일을 끊어버리자'라는 의미도 있고, 면발이 가늘고 길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 재료 소바 면 100g, 간장 2컵, 다시마와 디포리 우린 물 1컵, 설탕 1컵, 가쓰오부시 1컵, 맛술 1/2컵, 구운 양파 1/2개, 구운 대파 1/2대, 생강 편 2쪽, 구운 김 1장, 고추냉이 약간, 무 1쪽, 송송 썬 쪽파 적당량

* 만드는 방법



❶ 찌유는 간장, 다시마와 디포리 우린 물, 설탕, 맛술, 구운 양파, 구운 대파, 생강 편을 냄비에 넣고 은근한 불에 올려 맛이 우러나도록 20분간 끓인 뒤 불을 끄고 가쓰오부시와 구운 김을 넣어 5분 정도 맛이 우러나게 두었다가 체에 거른다.



❷ 무는 강판에 갈아 물기를 반 이상 뺀 뒤 동글게 뭉쳐 준비하고, 고추냉이도 강판에 갈아 동글게 뭉쳐 접시에 담는다.



❸ 끓는 물에 소바 면을 넣고 5~7분 정도 삶아 건진 뒤 열음물에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제거한다.

❹ 소바를 찌유, 갈아둔 무·고추냉이와 함께 낸다.



네덜란드 올리볼런

올리볼런(oliebollen)은 밀가루 반죽에 말린 과일을 넣어 열은 갈색이 나도록 튀긴 작은 공 모양의 달달한 도넛으로, 네덜란드 새해 음식입니다. 안에 다진 건사과, 건살구 등이 들어 있어 식감이 좋고, 상큼한 맛으로 느끼함이 적어 식후 디저트로 알맞아요.



- 재료 밀가루(강력분) 350g, 우유 200ml, 설탕 3/4컵, 드라이 이스트 1작은술, 달걀 2개, 건포도 3/4컵, 다진 건사과·다진 건살구 1/2컵씩, 슈거 파우더 1/2컵, 소금 1작은술

* 만드는 방법



❶ 볼에 강력분과 소금, 설탕을 넣는다. 미지근한 우유에 이스트를 잘 섞어 녹인 것을 볼에 부어 함께 섞다가, 달걀물을 넣고 부드럽게 반죽한다.



❷ 반죽에 건포도와 다진 건사과, 다진 건살구를 넣고 잘 섞은 뒤 랩을 씌우고 따뜻한 곳에서 반죽이 2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시간 정도 발효한다.



❸ 냄비에 튀김용 기름을 부어 180°C로 예열한 뒤 발효시킨 반죽을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한 번씩 떠 넣어 튀긴다.

❹ 겉면이 갈색으로 바삭하게 튀겨지면 건져내 키친타월에 올려 기름을 뺀다.



❺ 뜨거울 때 겉면에 슈거 파우더를 듬뿍 뿌려 완성한다.

달리면서 전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트레일 러닝 환경보호 단체 '세이브 더'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반려동물 장난감



코로나19로 도심에서 모일 수 없게 된 이들이 야외로 눈을 돌리면서 등산과 캠핑은 좋은 탈출구가 되어줬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늘어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정비하고, 새로 주차장을 만들고, 더 나아가 관람 열차나 케이블카 건설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자 쓰레기 투기 등 자연 훼손 문제가 뒤따랐다.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기 위한 이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자연보호에는 해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세이브 더(save the)'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모인 환경단체다. 조직된 지 어느덧 3년 차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그동안 지리산-제주도-북한산 등 전국 곳곳을 누볐다. 울거울에는 흑한기를 앞두고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부족한 먹이감을 채워줄 수 있는 도토리 저금통을 설치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자연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이브 더' 이야기와 함께 재활용품을 만드는 반려동물 용품 제작 방법도 소개한다.

글 편집실 /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재미와 자연보호,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활동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줍깅' 또는 '플로깅'이라고 한다. '세이브 더'는 이런 활동에서 더 나아가 '트레일 러닝'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들은 트레일 러닝을 통해 자연을 직접 마주하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이브 더'는 트레일 러닝을 즐기던 박준섭, 염주호 두 사람이 뜻을 모으면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산을 달리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고, 더욱 많은 사람이 자연을 즐기며 그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이 즐기는 트레일 러닝은 산악 마라톤이라고도 부르는 운동으로, 자연과 호흡하며 산과 숲, 들과 그리고 오솔길 같은 곳을 달린다. 최근에는 등산, 마라톤을 즐기는 2030세대가 늘면서 두 가지를 함께하는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세이브 더' 지리에 참여한 참가자들



'세이브 더'라는 이름은 세이브(save)와 함께 더(the)라는 정관사 뒤에 다양한 것을 붙여 지키고 싶은 것을 나타내면서 '어떤 것을 더 지키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 지었다. '세이브 더'에 정식으로 몸담은 활동가는 7명으로, 처음 2명에서 시작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모이면서 그 수가 늘었다. 이들은 평소 직장 생활 등 본업에 종사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모여 함께 활동한다. 그 때문일까. 이들의 활동은 전문적이거나 무겁지 않다. 일반인과 같은 눈높이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한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어 좋고, 계속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와 취미 활동으로 얻는 즐거움을 적절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모임의 장점이다. 정예지 활동가는 "우리 같은 소소한 단체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활동가들은 모두 30대 중후반이지만, 행사에는 20대 초중반부터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한다. 염주호 활동가는 "개인적으로도 '세이브 더' 활동을 통해 기록에 집착하던 러닝 습관을 바꾸고 환기하는 기회가 된다"며, "이를 계기로 취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이들은 달리기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달리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더욱 즐겁다고 입을 모은다.

산과 바다를 달리고 동물보호를 위해 댕니다

'세이브 더'의 활동은 한 해를 아우르는 큰 주제를 두고, 그 사이사이 작은 활동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2020년에는 '세이브 더 지리', 2021년에는 '세이브 더 아일랜드', 2022년에는 '세이브 더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갖가지 활동을 해왔다.

큰 주제는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결정하지만, 소규모 활동은 팀원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개인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첫해에는 '세이브 더'를 결성하게 된 계기인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을 반대하며 세이브 더 지리를 진행했다. 총 270km 릴레이 달리기를 통해 보존해야 할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다. 염주호 활동가는 지리산 둘레길을 새벽,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하루 4회를 달렸고, 다른 참가자들은 나머지 거리를 트레일 러닝과 하이킹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2021년에는 '세이브 더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독립된 공간인 섬에 우리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그중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도토리 저금통 설치를 위해 산에 오르는 '세이브 더' 팀원들

첫 번째 활동은 제2공항 신설 반대를 위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협력해 개발 예정지 네 곳을 12명의 트레일 러너가 달렸다. 또 캠핑 사이트로 유명한 장봉도와 석모도를 찾아 달리며 섬이라는 공간에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 안에서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며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올해는 '세이브 더 프렌즈'를 주제로 식물과 동물 보호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야생화를 시작으로 연어, 지리산 야생동물, 도토리 등이 주제였다. 2022년의 마지막 활동이자 가장 최근에 활동한 '세이브 더 도토리'는 산속에 사는 다람쥐에게 월동 준비의 필수품인 도토리를 제공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손잡고 도토리 저금통을 만들어 산 곳곳에 설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산속에서 우연히라도 줍게 됐다면 도토리 저금통에 넣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치 장소는 도봉산 우이령길로, 탐방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 등산로 세 곳에 도토리 저금통을 설치했다. 탐방지원센터와 그 인근, 세죽 시설 근처다. 지난 11월 27일 도토리 저금통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세운 뒤 탐방로 15km를 달리며 활동을 마쳤다.



북한산국립공원 도토리 저금통

더 많은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활동

활동가들은 등산 인구가 늘수록 환경 파괴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등산 데크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나무 데크를 만들면서 베어버리는 나무와 발생하는 쓰레기, 그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동물 등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갖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세이브 더'는 이런 다양한 환경문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세이브 더'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며, 환경보호 활동에 동참할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K)



재활용품으로 반려동물 용품 만들기

나무 막대와 인형으로 고양이 낚시대 장난감 만들기



1 리본 테이프 3~4가닥을 30cm 길이로 잘라 가운데에서 한 번 매듭지어 태슬을 만들어줍니다.



2 꽃 장식 한쪽 면에 만들어놓은 태슬과 1m 길이의 고무줄을 연결해 바느질로 고정해 줍니다.



3 나무 막대 끝 단면에 줄톱으로 홈을 내어 고무줄을 감아 고정해 주면 고양이를 위한 낚시대 장난감이 완성됩니다.

운동화 끈을 활용한 터그 장난감 만들기



1 준비한 원형 고리에 운동화 끈 한 개를 걸어 끼우고, 나머지 한 개의 끈을 십자 모양으로 겹쳐 줍니다.



2 십자 모양으로 끈을 하나씩 교차하는 사각매듭 방법으로 틀을 잡은 후 운동화 끈 끝부분을 틀에 끼워 매듭지어 주세요.



3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총을 쌓은 후 아랫부분을 묶어주면 터그 장난감이 완성됩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간식 통 만들기



1 페트병에 반려견의 간식이 나올 크기만큼 칼을 이용해 마름모꼴로 구멍을 내어줍니다.



2 뚫린 부분을 네일 파일로 갈아 날카롭지 않게 다듬은 후 구멍 주변을 마스킹테이프로 마감해 주세요.



3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페트병을 꾸미고, 마지막으로 간식을 넣어주면 간식 통이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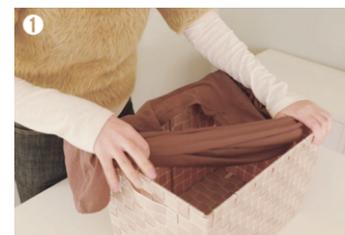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활용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 등 제작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납 바구니와 티셔츠로 펫하우스 만들기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수납 바구니와 입지 않는 티셔츠를 준비합니다. 반려동물의 출입구가 되어줄 티셔츠 목 부분이 바구니 입구 쪽으로 오도록 가운데로 잘 맞춰 티셔츠 전체를 씌워줍니다. 다 씌워진 티셔츠의 소매가 수납 바구니 양쪽으로 나오면 움직이지 않도록 소매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뒷면에 남은 티셔츠의 여분을 깔끔하게 말아 접어 코사지로 고정시켜 마무리하면 안락한 반려동물 하우스가 완성됩니다. 수납함 안쪽에 방석이나 담요 등을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2022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15회 대의원회 개최

회원 중심의 금융·복지서비스 강화로 더 든든한 2023년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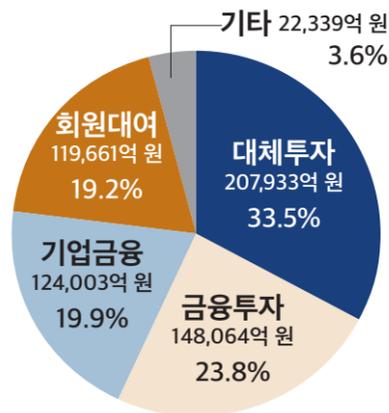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28일 The-K제주호텔에서 제115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근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영전략기획실장 등 관계직원 외 전국 시·도지부장 9명 및 대의원 70명이 참석했으며, 2022년 주요 경영현황 및 운영실적, 2023년 추진 사업, 2023년도 감사 계획 및 예산안 등의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15회 대의원회 현장 모습과 주요 내용을 전국의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소개해드립니다. ㉔

2023년 자산규모 약 62조 2천억 원, 회원수 약 88만 9천명 전망



공제회는 중장기 경영목표, 대내외 현안 분석, 2023년 주요 사업계획 등을 종합하여 「2023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2023년도 총 자산은 약 62조 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2022년 말 추정 자산실적 57조 원 대비 약 5조 2천억 원(9.1%)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2023년도 공제회 총 회원 수는 약 88만 9천여 명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추정 회원 수 88만 2천여 명 대비 약 7천 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준비금 적립률은 110.1%에 이를 전망으로, 2022년 말 추정실적 109.9% 대비 0.2%p 증가한 목표입니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러·우 전쟁 여파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및 다각화, 선별적·선진적 투자 기회 발굴로 분산 효과를 강화해 안정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 전망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산별 구성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2023년 자산 운용 규모는 ▲대체투자 207,933억 원(33.5%) ▲금융투자 148,064억 원(23.8%) ▲기업금융 124,003억 원(19.9%)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의원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 총 8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업·결산보고서 등을 의결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제22대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 임기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1 회원복지사업 재구조화, 회원 대상 혜택 확대

회원님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부조 제도 및 문화·생활복지서비스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각종 복지부조 제도가 개편되며, 유족급여금·상병급여금, 사망 및 상이급여금 지급 금액을 전년 대비 확대, 무료 법률·세무 회원 상담소 강화에 이어 노무 상담소를 신설합니다. 이와 더불어 The-K 휴스테이 제휴 숙소 확대 및 객실료 지원, 신규 콘도 회원숙박권 매입, 문화복지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회원님들께서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모바일 APP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앱(APP) 신규 구축 및 PC,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메뉴 구성, 온라인 금융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처리 업무 확대 등을 목표로 2023년 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3 회원 상담창구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

회원 편의성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전국 15개 상담실, 45개 상담창구에 태블릿 모니터, 신분증 스캐너 등을 통한 페이퍼리스 시스템 도입을 준비합니다. 내방 시 작성하시는 가입·청구 관련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해 일괄 서명 기능 등으로 서명 횟수를 최소화하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서류작성 시 발생하는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여 ESG 경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제115회 대의원회에서는 내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의 외에도 2023년도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2023년도 자체감사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의결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회원 및 국민에게 공식 홈페이지 내 '경영공시' 메뉴를 통해 의결 결과를 공개하여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주요 현안을 토론 및 간담회 주제로 발제해 지역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등 원활한 소통과 회원 의견 수렴, 투명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가족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이자 평생 동반자로서 오직 회원님을 위한 안정적 금융 혜택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023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저축제도와 대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시설 할인·제휴, 복지부조금 제도 운영, 이벤트 개최 등 생활·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제회원들의 모든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더 확대·신설·개편되어 달라지는 각종 제도·보험·복지 주요 혜택들을 한 번에 모아 안내합니다. 회원님을 위해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들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2023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저축

2023년 1월 1일,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를 1,500구좌(90만원) ▶ 2,500구좌(150만원)로 확대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 구좌 수 상향에 대해 꾸준히 건의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월 납입 한도를 현행 1,500구좌(90만 원)에서 2,500구좌(1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는 2015년 확대 후 2019년 9월 1일 1,000구좌(60만 원)에서 1,500구좌(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회원님께 더 많은 금리 혜택을 환원하고 퇴직 시 분할급여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상한구좌 수 확대를 기념해 진행하는 증좌 신청이벤트를 확인해보세요!

교육 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국내 최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 연복리 3.80%(변동금리, 2022. 07. 01. 기준)
- 저율과세(0~3%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 퇴직시 일시금/분할 지급(연금형) 선택 가능
※ 분할 지급 선택 시에도 저율과세(0~3%대)로 시중 연금 상품과 비교해 실 수령액이 많음

1971년 6월 제도 출시, 50주년 맞은 장기저축급여

「The-K 매거진」 특집기사 바로가기 ▶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기념 증좌 신청 이벤트

월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부터 증좌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증좌 신청 후, 이벤트에 응모하신 회원님 중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10구좌(6,000원) 단위로 증좌 가능

- 응모기간 2023.01.02(월)~02.28(화)
- 응모대상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
- 당첨발표 2023.03.15(수) 홈페이지 확인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경품제공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 (아메리카노 Tall +7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 문의전화 1577-3400



EVENT

복지

회원님의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부조 제도, 개편·확대합니다.



공제회는 회원님의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부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조 기념품은 회원 대상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말 선정하며, 올해도 회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용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결혼기념품 및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은 기념품 대신 축하금으로 확대·변경, 제도명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더불어 고구좌회원축하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공제급여금(유족급여금, 상병급여금, 사망 및 상이급여금) 지급 금액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p>가입축하기념품 (신규회원가입, 재가입, 특별회원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재가입 기념품 : 멀티그릴, 밀폐용기, 스텐냄비, 핸드블렌더 중 1종 • 특별회원가입 기념품 : 냄비세트, 에어프라이어, 멀티전기 그릴팬 중 1종 • 퇴직기념품 : 와플메이커, 티포트기, 밀폐용기, 가마솥 세트, 찜전골냄비+요리핀셋 중 1종
<p>결혼기념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명 변경 : 결혼기념품 ▶ 결혼축하금 • 품목 변경 : 기념품 ▶ 현금 10만원 * 2023년 3월중 신청하면 오픈 예정
<p>20년유지회원 감사축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명 변경 : 20년유지회원 감사기념품 ▶ 감사축하금 * 22.12.01.부터 적용 • 품목 변경 : 모바일 상품권 ▶ 현금 3만원
<p>출산축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변경 : 필수 동의에 '자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추가 * 22.12.01.부터 적용
<p>고구좌회원축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금액 확대 : 현금 20만원 ▶ 현금 30만원

보험

다양한 보장을 갖춘 보험 신상품 출시 & 초회 부담금 당일 이체를 도입합니다.

공제회는 회원님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충족해드리기 위해 현재 총 14개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제, 자녀종합공제 및 실속건강공제 등의 상품을 통해 암, 뇌·심장질환 및 교직원3대질환 등 다양한 질환 중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암과 치매 등을 보다 다양하게 보장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덜어낸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즉시 보험 가입이 필요한 회원님이 CMS 입금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제회 주거래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KB은행으로 변경되는 것과 더불어 2023년 9월부터 가입심사 완료 시 당일 회원님의 계좌에서 초회 부담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회원 편의성을 높여드릴 예정입니다.

The-K 행복서비스

더 폭넓은 각종 문화·생활복지 혜택으로 더 든든하고 행복한 일상을 선사합니다.



무료 법률·세무 회원 상담소 강화에 이어 노무 상담소를 신설합니다. 법률 상담소는 2022년 16개에서 2023년 17개소, 세무 상담소는 2022년 9개에서 2023년 10개소로 1곳씩 증설되며, 노무 상담소는 2023년에 전국 8개소가 첫 신설됩니다. 더불어 The-K 휴스테인 제휴 숙소 확대 및 객실료 지원, 신규 콘도 회원 숙박권, 그리고 문화복지 행사 및 혜택 개편으로 더 많은 회원님들께서 폭넓은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2023년 연간 문화행사 주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The-K 매거진 'The-K Focus 3' 기사를 만나보세요!

공제회원님들의 2023년 일상 속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기를

미리 보는 The-K 행복서비스 연간 문화행사 모음집

한국교직원공제회 평생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생활·문화복지서비스 브랜드 'The-K행복서비스'가 2023년 회원님들의 모든 일상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다시 시작합니다. 공제회 'The-K 행복서비스'는 2011년부터 매년 공연·예술·전시·영화 등 각종 문화복지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매년 행사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회원 의견과 니즈를 반영,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연간 계획에 참고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라며 The-K행복서비스 연간 일정을 소개합니다. ㉠

※ 행사 계획은 홈페이지 응모 기준이며,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피는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김중해-

<p>1월</p> <p>북&JOY 도서 증정 2023년의 시작을 여는 베스트·스테디셀러, 테마 도서 증정 행사가 찾아왔습니다.</p> <p>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기념 증좌 신청 이벤트 (※ 「The-K Focus 2」 기사 참고)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1,500구좌 ▶ 2,500구좌) 기념, 증좌 회원님께 선물을 드려요!</p>	<p>2월</p> <p>문화라운지 공연 티켓 증정 회원님을 위해 준비한 고품격 '문화라운지' 문화예술공연에 초청합니다.</p> <p>제휴 복지시설 관련 행사 오직 회원님을 위한 제휴 복지시설을 소개합니다.</p> <p>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퇴직급여금 청구,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누리실 수 있어요.</p> <p>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홍보 이벤트 차곡차곡 쌓은 장기저축급여, 퇴직 시 분할급여금으로 풍요롭게!</p>	<p>3월</p> <p>북&JOY 도서 증정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힐링의 순간!</p> <p>아트&JOY 티켓 증정 전국의 핫한 전시회 티켓을 만나보세요!</p> <p>The-K 은빛동행 특별회원님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로 즐거운 여가를 선사합니다.</p>
------------------------------------------------------------------------------------------------------------------------------------------------------------------------------------------------------------------------------------------	--------------------------------------------------------------------------------------------------------------------------------------------------------------------------------------------------------------------------------------------------------------------------------------------------------------	-----------------------------------------------------------------------------------------------------------------------------------------------------------------------------------------------------------------------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 되어 너의 온 하루 반짝이도록

-「햇살」이경선-

<p>4월</p> <p>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전국 각지, 소외지역 학교에 공제회가 찾아갑니다.</p> <p>씨네&JOY 영화에매권 증정 다시 찾아온 회원님을 위한 대규모 영화 관람 혜택!</p>	<p>5월</p> <p>북&JOY 도서 증정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와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아요!</p> <p>The-K 은빛동행 행복을 더하는 선물로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합니다.</p> <p>행복콘서트 울려퍼지는 노래, 공연으로 함께 현장감을 즐길 수 있는 공연</p> <p>스포츠&JOY 액티비티 이용권 증정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실내/외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 제공</p> <p>커피트럭 이벤트 회원님이 속한 학교에 공제회가 커피트럭과 함께 찾아갑니다!</p> <p>The-K 휴스데이 신규 제휴 이벤트 The-K 휴스데이와 함께 하는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 제휴 확대 기념 특별 이벤트</p>	<p>6월</p> <p>The-K 온라인 이벤트 행사 더 즐겁게 취미여가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합니다.</p> <p>소비자중심경영 이벤트 Quiz CCM 관련 퀴즈와 함께 찾아온 즐거운 경품 증정의 시간</p> <p>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세요!</p>
--------------------------------------------------------------------------------------------------------------------------------------------------	-------------------------------------------------------------------------------------------------------------------------------------------------------------------------------------------------------------------------------------------------------------------------------------------------------------------------------------------------------------------------------------------------------------------------------------	----------------------------------------------------------------------------------------------------------------------------------------------------------------------------------------------------------------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청포도」이육사-

<p>7월</p> <p>북&JOY 도서 증정 산뜻한 여름의 시작, 나만의 책을 고르는 특별한 시간</p> <p>씨네&JOY 영화에매권 증정 영화로 고민과 걱정을 모두 시원하게 날려보세요!</p> <p>공제제도 온라인 설문 이벤트 공제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p>	<p>8월</p> <p>북&JOY 도서 증정 읽고 싶은 책과 함께 더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누리세요.</p> <p>문화라운지 공연 티켓 증정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에 초대합니다.</p> <p>제휴 복지시설 관련 행사 전국 각지 다양한 제휴호텔&리조트, 기관을 만나보세요.</p> <p>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세요!</p>	<p>9월</p> <p>북&JOY 도서 증정 & 저자 강연회 독서의 계절, 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함께 책 읽고, 베스트셀러 저자도 만나보세요!</p> <p>The-K 은빛동행 편안한 일상, 고품격 노후를 위한 소확행 이벤트를 준비했어요.</p> <p>아트&JOY 티켓 증정 전국의 핫한 전시회 티켓을 만나보세요!</p>
-------------------------------------------------------------------------------------------------------------------------------------------------------------------------------------------------------------	-----------------------------------------------------------------------------------------------------------------------------------------------------------------------------------------------------------------------------------------------------------------------------------	------------------------------------------------------------------------------------------------------------------------------------------------------------------------------------------------------------------------------------------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겨울사랑」문정화-

<p>10월</p> <p>북&JOY 도서 증정 즐겁고 유익한 독서로 풍성하고 다채롭게 일상을 채워주세요!</p> <p>The-K 온라인 이벤트 행사 특별한 온라인 취미여가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합니다.</p> <p>씨네&JOY 영화에매권 증정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골라보는 재미</p>	<p>11월 12월</p> <p>북&JOY 도서 증정 책과 교감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보세요.</p> <p>The-K 은빛동행 공제회가 드리는 선물과 함께 기분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해요!</p> <p>문화라운지 공연 티켓 증정 맞춤형 문화공연 행사로 멋진 연말을 선사합니다.</p> <p>스포츠&JOY 액티비티 이용권 증정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실내/외 액티비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p> <p>아트&JOY 티켓 증정 행사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교양과 체험을 한 번에!</p>	<p>The-K 온라인 이벤트 행사 더 즐겁게 취미여가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합니다.</p> <p>제휴 복지시설 관련 행사 제휴복지시설과 함께 품격있고 편안한 힐링의 시간</p> <p>The-K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회원님을 위해 월 2회 보내드리는 이메일 소식지, 클릭해보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받아주세요.</p> <p>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정년·명예퇴직 회원님을 위한 온라인 청구도 이용하고 선물도 챙겨보세요!</p>
--------------------------------------------------------------------------------------------------------------------------------------------------------------------------------------------------------------------	--------------------------------------------------------------------------------------------------------------------------------------------------------------------------------------------------------------------------------------------------------------------------------------------------------------------------------------------------------------------	--------------------------------------------------------------------------------------------------------------------------------------------------------------------------------------------------------------------------------------------------------------------------------------------------

※ 세부사항 및 행사 참여방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The-K 행복서비스' 이벤트 페이지 참조

365일 더 큰 감동과 만족으로 회원님 곁에 함께, The-K 행복서비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1년 'The-K 행복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더 많은 회원님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매년 꾸준히 행사 규모를 늘리고 품격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약 23만 7천여 명(동반포함 총 36만 2천여 명)의 교육 가족이 문화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소개해드린 2023년 시즌별 행사들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회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행복서비스와 더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제회원님 곁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축제에 커피를 더하니 즐거움과 행복이 2배입니다

여덟 번째 현장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2023년 새해를 목전에 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중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닐까요? 내년 3월에 시작되는 청주시의 유아·초·중·고등학교의 새 학기를 준비하여 밤낮없이 달리고 있는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을 위해 커피트럭을 이끌고 달려간 날, 마침 그날은 청주교육지원청 전 직원들이 모여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습니다. 축제에 커피를 더하니 행복이 두 배로 우유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던 시간, 그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글 이경희 / 사진 성민하



보랏빛 커피트럭이 보랏빛 행복을 선물합니다

청주로 내려가는 날씨는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었다. 한파 속에서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고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도 만만치 않아 오늘 커피트럭이 과연 예전처럼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 섞인 걱정이 깃든다. 그러나 그 걱정은 이내 저만치 사라졌다. 오늘날따라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근사한 커피트럭에 오가는 청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이목이 한껏 쏠린 것. 보라색 트럭에 매달린 풍성한 보랏빛 풍선들, 빨간 목도리를 매고 당근 코를 하고 있는 커다란 눈사람 인형, 겨울을 잊게 하는 풍성한 꽃다발, 여기에 청사 직원들을 위한 달달한 간식 패키지에 「The-K 매거진」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도저히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모양새다. 아직 오픈하기도 전에 지나가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니 오늘 흥행 성적에 대한 축이 좋다.

학교지원과 고관영 주무관이 커피트럭 설치를 시설부와 함께 돕고 학교지원과에서 직접 준비한 배너를 설치하며 직원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 이은정 주무관님이 바쁜 일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바로 오시길 못하거든요. 평소 우리 직원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주무관님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싱긋 웃는 그의 미소 속에서 따뜻한 동료애가 뜨끈하게 느껴진다. 오늘 행사가 열리는 교육지원청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듯하면서 또 낯선 곳이다. 교육청은 알아도 교육지원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하위기관으로 시군 단위에 있는 교육청을 일컫는다. 청주교육지원청 역시 충청북도교육청에 속한 기관 중 하나로 청주시 관내 학교들이 세부적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도맡아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연말 연초면 밤늦도록 불 꺼진 사무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학기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치밀하게 준비하기 때문이다.

혹한을 이겨낸 모두의 즐거움

오전 11시 30분, 드디어 본격적인 커피 타임이 시작됐다. 바로 뒤 건물 대회의실에서 오늘 ‘2022년 희망트리와 함



께하는 학교지원 하나 DAY 개장식’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커피트럭 주변을 오가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이 행사는 청주교육지원청 전 부서가 학교지원의 공감 토대 위에서 소통과 협업 마인드를 조성하는 화합의 장으로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이다. 신나는 행사에 흥을 북돋아 주는 건 단연 먹거리다. 대회의장 입구에 화려하고 근사한 커피트럭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으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두 배다. 시간이 지나자 점심을 먹고 온 직원들이 발 빠르게 줄을 서기 시작했다. 추위 속에서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신청하는 ‘얼죽아’ 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고 더 놀라운 것도 있었다. 다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웃음과 이야기꽃을 내내 활짝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진 터라 평소 자주 못 본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가움에 서로 얼싸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두 손을 맞잡고 방방 뛰기도 하는 등 그 에너지가 대학 캠퍼스 못지않다.

“평소 교직원공제회가 저희 회원들에게 각종 금융혜택은 물론, 복지, 힐링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주무관을 통해 이렇게 기분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에너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지원국 최영미 국장의 덕담과 감사를 유초등교육과 남미경 유아교육 팀장도 이어받는다.
 “저희 교육지원청에 커피트릭이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라고 기뻐요. 우리 직원들 모두가 지난 1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으로 일을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응원합니다!”
 손을 호호 불며 줄 선 직원들에게서는 아주 다양한 소감들이 쏟아져 나온다. “커피트릭이 온다고 해도 그렇고 그런 트릭이 오겠지 했는데 연예인들이 받는 커피트릭보다 훨씬 예쁘다”며 감탄을 감추지 못하는 직원, “내가 스타 연예인이 된 것 같다”며 목에 힘을 주는 직원들까지 반응이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희망찬 2023년을 기대합니다

점심시간이 넘어가자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이은정 주무관이 숨차게 등장했다. 커피트릭과 트릭을 둘러싸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한가득이다. “사연을 보냈던 때가 우리 직원들이 정말 바쁜 시기였어요. 다들 체력이 떨어지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우연히 「The-K 매거진」 웹진에서 커피트릭 이벤트를 보게 됐죠. 설마 되겠어? 하면서도 이런 기회가 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사연을 써서 보냈는데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오늘이 저희 과에서 준비한 ‘하나 DAY’ 행사날인데 이렇게 커피트릭 이벤트와 함께 진행하게 돼서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이은정 주무관은 오전 내내 직원들이 SNS 메시지를 통해 커피트릭 사진을 보내왔다고 하며 함박웃음과 함께 자신의 휴대 전화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커피트릭 이벤트가 결정된 뒤 모든 사안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팀장, 과장에게 보고가 진행됐고 이왕 커피트릭 이벤트를 하게 됐으니 ‘하나 DAY’와 함께 맞춰서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은정 주무관이 사진촬영을 위해 커피트릭 쪽으로 향하자 학교지원과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과에서 준비해준 배너 앞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그야말로 난리법석이다. “이은정! 이은정!” “우.웁.빛.깔. 이은정!!” 최애 오빠를 따라나선 소녀팬들마냥 후배들이 환호성과 비명을 지르자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한다. 주인공 뒤의 배경인물로도 기꺼이 참여해주는 열정까지 보여주니 새삼 오늘 종일 느꼈던 청주교육지원청의 남다른 에너지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새록새록 실감난다.

“충청북도 각 시에는 많은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청주가 가장 큼니다. 그만큼 업무량도 많고 야근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모두가 웃으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사 직원들 모두가 올 한 해도 모두 잘 마무리하고 지원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예상되지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직원공제회에서 커피트릭 이벤트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험난했던 2022년,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모든 걸 헤낼 수 있었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청주교육지원청 사람들! 이들이 있는 한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은 여전히 전국구로 그 명성을 떨칠 것이다. ㉞



모두에게 행복을 선물해준 커피트릭 학교지원과 고관영 주무관

이은정 주무관님이 평소에도 워낙 친절하시고 정이 많은 선배님이세요. 커피트릭 이벤트를 신청하신 뒤 막상 선정됐다고 하니 조금 당황하셨는데 저희들에게도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과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원하며 도와주셨습니다. 이은정 주무관님을 위해서 특별히 배너를 만든 것도 모두의 아이디어였는데 주무관님께 얼굴 사진까지 넣겠다고 하니깐 펄쩍 뛰셔서(웃음) 이름만 넣는 것으로 타협을 했지요. 학교지원과는 청주시의 각 학교들의 기간제교사 채용, 교육공무직 채용계약을 하는 등 각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학기를 앞두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커피트릭 응원은 정말 최고의 시기에 찾아와준 기쁨이었어요. 하나 DAY 행사와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더 행복했구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은정 주무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출고 바쁜 연말연시가 따뜻해졌습니다 시설사업과 조수연·정지은 주무관

우리 시설사업과는 청주시 관내 학교들의 시설 업무 공사를 집행하는 곳이에요. 새학기를 앞두고 신축 시설이나 수리를 원하는 학교 숫자가 많고 또 그에 따라 공사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설사업과 전체가 업무량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또 잘 마무리가 됐는지 끝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야근도 정말 많이 하세요. 과 특성상 주사님들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신데 선하고 배려심도 많으셔서 업무로 힘든 와중에도 과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학교지원과 이은정 주무관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The-K 매거진」에 사연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커피트릭이 청사까지 달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운 연말에 따뜻한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와 함께 마무리하는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재정과 김용규·신나래·이용표 주무관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겠지만 연말연시는 한해를 정리하고 또 시작하는 때라 굉장히 바쁩니다. 마음 편히 커피를 마시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짬을 내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직원공제회에서 커피트릭을 선물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기도 했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우리 재정과는 청주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경리·회계·집행 업무 등을 하는 곳입니다. 12월은 특히 회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과 전체가 매우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커피트릭을 청사 직원 전체가 선물로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우리 재정과 가족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소망해요. 이은정 주무관님께는 감사인사를 꼭 전하고 싶고요. 2022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 상향 조정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이 변동된다. 지난해 각종 저축제도 급여율 인상에 이어 일반대여 이율은 4.40%에서 4.99%, The-K복지누리대여 이율은 3.80%에서 4.20%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대여 및 The-K복지누리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급여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구분	현행	조정	비고
일반대여	4.40%	4.99%	0.59%p 인상
The-K복지누리대여	3.80%	4.20%	0.40%p 인상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 확대 안내 & 증좌 신청 이벤트 1월 2일 ~ 2월 28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월 납입 한도)를 현행 1,500구좌(90만원)에서 2,500구좌(150만원)로 확대한다. 장기저축급여 상한구좌 수는 2015년 확대 이후 2019년 9월 1일 1,000구좌(60만원)에서 1,500구좌(90만원)로 상향 조정되고 4년 만에 확대이다. 이번 상한구좌 수 확대를 기념해 장기저축급여 증좌 신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기저축급여 증좌를 신청하고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오늘도 달콤하게 세트)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5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모바일 발송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2022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2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본 안내문에는 회원의 2022년 12월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현재 가입한 구좌 기준 퇴직가정급여금, 최대구좌로 증좌 했을 시 퇴직가정급여금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창구에서 휴대전화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잘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회원의 노후 생활자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 저축상품(적금형)이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제6차 인증 획득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제6차 인증을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경영 평가지표를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격년에 한 번씩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회원중심 경영에 힘써왔으며, 회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2012년 공제회 중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후 여섯 차례 연속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재심의에서는 회원의 소리(VOC) 운영 및 관리, 콜센터와 상생협력관계 유지 등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사진)은 “본회 첫 번째 경영방침은 회원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에 걸맞은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증유효기간: 2023.01.01~2024.12.31(2년)

새로운 복지부조 기념품(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등) 선정

2023년 1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부조 기념품이 변경된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부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조 기념품은 2022년 온라인 회원패널 아이디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가입·재가입·특별회원가입·퇴직기념품 품목을 새로 선정하였다. 제도별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 등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 신규회원가입·재가입 축하기념품 : 멀티그릴·밀폐용기·스텐냄비·핸드블렌더 중 1종 선택
- 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 : 냄비 세트·에어프라이어·멀티 전기 그릴팬 중 1종 선택
- 퇴직기념품 : 외플메이커·티포트기·밀폐용기·가마솥 세트·찜전골냄비+요리핀셋 중 1종 선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제회는 S2B에서 대구광역시 내 지역업체 제품구매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대상 S2B 사용방법 교육·연수 실시 및 지역 소상공인의 S2B 적극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상곤 이사장(사진 오른쪽)은 “대구광역시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공 구매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S2B를 통해 지역업체 물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 한국감사인대회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제주 메글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회적가치실현기관상은 한국감사협회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조직 운영과 공공서비스 공급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한 법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착한 임대인 동참과 취약계층 청소년 후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투자회사와 출자회사의 ESG 부문 평가를 통한 협력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도와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 참여 탄소중립숲’ 조성사업 참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재수 상임감사(사진 오른쪽)는 “금번 수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제회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진흥원과 S2B를 통한 창업기업 공공시장 판로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창업진흥원과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S2B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창업진흥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는 창업기업 대상 S2B 입점 및 이용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창업진흥원은 S2B 입점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철오 S2B 사업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요기관은 S2B를 통해 품질 좋은 창업기업의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창업기업은 어려운 공공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의 순기능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 기관상 수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관하는 ‘2022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업무와 회계)부문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적극행정 감사업무 수행으로 부패척결과 비리예방을 통해 청렴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감사인을 선정해 공로를 포상하는 행사이다. 공제회는 예산낭비 및 업무 비효율 요인 제거, 자체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자회사 자체감사기구 역량강화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he-K호텔서울

새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신년 맞이 객실 특가 이벤트



The-K호텔서울은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윈터 패키지**를 진행한다. 우선, 공제회원들을 위해 **신년 객실 특가 이벤트**를 1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 이벤트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이며, 공제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요일) 7만7천원, 주말(금~토요일) 11만원, 설 연휴기간은 11만7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 1/21~23) 또한, 1월 한 달 동안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우철헤로 조식 패키지**는 디럭스 트윈 1박과 조식 뷔페 2인 구성, **우철헤로 디너 패키지**는 디럭스 트윈 1박과 우철헤로 세미 뷔페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 할인가로 조식 패키지는 주중 12만2천원, 주말 15만5천원, 설 연휴기간 16만2천원이며, 우철헤로 디너 패키지는 주중 14만2천원, 주말 17만5천원, 설 연휴기간 18만2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주중: 일~목요일, 주말: 금~토요일, 설연휴기간 : 1/21~23, VAT포함) 본 패키지 이용 회원에게는 피트니스클럽 50% 할인, 우철헤로와 베이커리 카페 델리 식음료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The-K호텔서울은 양재시민의 숲과 양재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호텔 내부의 넓은 녹지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The-K호텔서울에서 자연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와 함께 진정한 힐링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더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2023년 신묘(新卯)한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The-K호텔경주는 새해를 맞아 **2023년 신묘(新卯)한 패키지**를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새롭게 선보인다. 본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구성이며 회원 할인가로 11만6천원부터 이용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3년 설 연휴 경주여행 패키지**도 준비했다. 1월 21일~23일간 진행되는 해당 패키지는 동일 구성이며 19만6천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특히 설 명절을 함께 즐기기 위해 1월 22일은 **더케이맨을 이겨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투호, 제기차기를 통해 더케이맨을 이기면 숙박·뷔페·사우나이용권 등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The-K호텔경주는 호텔을 찾아오는 회원들에게 2023년 새해 문무대왕릉이 있는 이견대에서 **동해바다 일출 감상**을 추천한다. 자신의 유골을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왜구를 막겠다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있는 천연 암초에 사방으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물길을 뚫는데, 감은사 금당 아래를 동해로 구멍을 내어 해룡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유골이 안장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운 일출 풍경을 자랑한다. 한편 지난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친 몸은 The-K호텔경주의 **천연온천사우나**에서 풀어보는 것도 좋다. 경주시 지정 최우수 사우나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천연 알칼리성 100% 온천 원수인데다, 특히 야외노천탕은 자연 숲속에 위치하여 운치가 매우 뛰어나다. 뜨거운 야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바깥 공기에 얼굴을 내맡기면 어느새 기분 또한 상쾌해진다. 수영장, 헬스장, 온천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The-K호텔경주로 겨울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및 예약은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즐기는 남도골프여행(숙박&골프) 이벤트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싶은 공제회원을 위해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는 **남도골프여행(숙박&골프)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골프존카운티 드래곤' 골프장에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회원이라면 1인당 주중(월~금) 28만1천원, 주말·공휴일에는 33만1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1월 16일부터는 1만원 추가할인 카트비 포함) 구성은 1일차 11시~12시대 18홀, 2일차는 조식 제공, 9시대 18홀을 이용 가능하다. 단, 3인 이하일 경우 라운딩이 불가하며, 캐디피와 숙박료는 별도 요금을 적용한다. 본 이벤트는 The-K지리산가족호텔 유선 전화로만 예약할 수 있으며, 골프존카운티 드래곤 이용회원이 The-K지리산가족호텔에 투숙할 경우 온천 사우나 4인 이용권(1회)을 제공한다. 맑은 공기, 탁 트인 골프장에서 즐기는 남도골프여행 떠나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패키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 지역 친환경 화장품 제조업체 '제이인 제이'와 함께 친환경 어메니티를 경험할 수 있는 **올인원 뷰티(All In-One Beauty) 패키지**를 선보였다. 올인원 케어볼은 제주 청정 자연 그대로의 화산 암반수와 고급 동백오일을 함유한 고보습 비누로 샴푸, 세안, 바디 워시까지 가능해 친환경 어메니티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청정 제주의 유기농 동백오일은 오메가3·6·9,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항산화 및 피부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함유된 제주 연꽃잎은 피부의 자정능력과 보습효과에도 도움을 준다. 친환경 제품이라 피부타입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임직원 등과 함께 당 호텔 주변과 인근 관광지인 용두암 일대를 돌아다니며 플로깅을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연박 객실 시트 미교체 및 수건 재사용 등 **고그린 캠페인**을 펼쳐 방문하는 회원들도 함께 '그린 스테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실 예약 및 공제 회원 할인가 등 자세한 사항과 예약문의는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11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663명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The-K 매거진」은 새해에도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위에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지만,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게도 많은 회원님께서 따뜻한 의견을 편집실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을 앞두고 긴장된 생활 속에서 위로와 공감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의견,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깊이 있는 삶과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됐다는 이야기,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인정을 강조한 인터뷰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었다는 소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회원님들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더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희망 메신저' 「The-K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29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모든 구름은 은색 자락이 있다).”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구절이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이 구절이 힘이 되고 다시금 새롭게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11월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의 지나영 교수님 기사였어요. 본질 육아에 대한 내용도 많았지만, 저는 특히 지나영 교수님의 인생사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인생에 세 번의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련을 통해 단단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직접 강연하시는 것도 너무 좋네요. 「The-K 매거진」 덕분에 귀한 분을 한 분 더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서*혜 회원 전주대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회원님과 함께 룬런하는 공제회 고금리 예적금 특장점’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9월호의 고금리 예적금에 대한 안내 기사도 자세하고 친절해 좋았지만, 11월호 회원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후기는 특히 더 좋았습니다. 퇴직교원으로 퇴직급여와 목돈급여에 가입해 저 또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만족하는 데다 변동금리 적용으로 시중 어느 곳보다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도 높은 교직원공제회의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연 회원 전 자운고등학교

‘인생 이모작’ 이찬재-안경자 부부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한참 나이도 어리고 생각도 짧지만 늘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실천은 부족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요즘 젊은 세대 못지않게 열정 넘치고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도전 의식이 부족한 저에 대해 다시 한번 반성하고 바르게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SNS를 들여다보니 같이 찍으신 사진과 재밌는 영상, 직접 그린 그림이 정말 많더군요. 또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준 회원 새롬고등학교

11호에서 ‘장애’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김병건 교수님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여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광에 김병건 교수님의 장애 이해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전문으로 녹여져 있었다는 사실에 숙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는 존중의 영역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특수교육 현장에 있는 저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유익했던 기사이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맹*헌 회원 용인감남학교

「The-K 매거진」 11월호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가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The-K 매거진」 창간 5주년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The-K 매거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The-K 매거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회원들이 보내온 글을 찬찬히 읽어보며 매거진이 회원들의 일상에서 좋은 친구이자 멘토로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The-K 매거진」이 독자와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도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처럼 공제회의 대표 소식지로, 교육 현장의 희망 메신저로 꼭 함께주세요.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코너에 소개된 지나영 교수님 인터뷰 기사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육아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과 육아를 밥 짓기에 비유해 설명해 주신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사로서 우리 반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고, 바르게 자라도록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길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기 회원 은어울초등학교

2022년 고3 담임으로서 아이들과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저 또한 매우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인 저도 불안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건넸는데요. 「The-K 매거진」 11월호 ‘고민 상담소’ 기사를 읽고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몰아세우기보다는 ‘위로와 공감의 한마디’를 건넬어야 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불안의 메시지보다는 ‘긍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습니다. 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The-K 매거진」 편집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무사히 건강하게 수능 치르기를 바랍니다.

홍*기 회원 전주영생고등학교

「The-K 매거진」을 읽다 보면 점점 밝고 따뜻해지는 건 저만의 느낌이 아니겠죠? 작은 그림이나 기호도 마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작은 것에 신경 쓰심이 느껴집니다. 「The-K 매거진」 속인 대하소설 같은 장편을 읽는 느낌도 있고, 위인전 같은 마음의 울림과 깨달음도 있고, 수필과 같은 설렘과 고독함도 있고, 시집 같은 노래 같기도 하고, 만화 같은 재미도 있어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우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와 따뜻함을 주세요.

박*영 회원 햇님유치원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1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번 달도 금방 지나감에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낍니다. 공제회의 목돈급여를 애용하는데 타 금융권의 금리인상 소식에 갈아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역시 공제회도 금리를 잘 빠르게 인상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으며 11월호는 더 찬찬히 읽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다운될 때 다른 분들의 다양한 삶과 글을 읽으며 회복하기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서 용기 또한 얻어봅니다. 지친 일상, 「The-K 매거진」으로 가벼운 산책처럼 기분 전환 어떠신가요?

주*혁 회원 창원중앙중학교

교육과 관련한 너무나 유용한 콘텐츠, 계절마다 추천해 주시는 여행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여러 이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소식 전해주셔서 교육업계에 종사하며 많은 정보의 리소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진행되는 이벤트도 즐겁습니다. 「The-K 매거진」은 우리나라 교육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롭고 최신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은 회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엊그제 환갑을 맞이했어요. 2023년 2월이면 정년 퇴직인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순식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기다려지는 「The-K 매거진」을 통해 사람 사는 이야기와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감동받고 자극받으며 나이 먹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닌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았던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매월 「The-K 매거진」을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세요.

박*숙 회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늘 「The-K 매거진」 잘 읽고 있으며 11월호의 「The-K Focus」도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로 데케이 행복서비스가 다녀간 행사 현황 기사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방에는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많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생이 127명이라는 작은 전북 장수 장계중학교에서 열린 비보이 댄스와 클래식 공연 기사를 읽고 나니, 저도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진행한 다양한 행사 소식을 많이 실어주세요.

이*주 회원 부천여월초등학교

공제회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다 되었지만, 최근 더욱 공제회 회원이라는 소속감이 이렇게 질어진 적은 없습니다. 「The-K 매거진」의 ‘역사 속 영웅’ 코너를 읽으며 우리 선조 및 역사 속 인물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다시금 역사책에 관심을 가지고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 곱하기의 ‘방방곡곡 숨은 명소’를 보면서 나의 여행에 대한 꿈도 소소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 해외여행도 못 가는 아쉬움을 국내 숨은 명소 몇 군데 찾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명소들의 소중함과 또한 공제회의 소식에 대한 정보력에 더욱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이런 이벤트를 통해 소확행까지 누리는 중입니다. 간혹 커피 한 잔의 당첨 이벤트 소식을 듣고 작지만 정말 하루 종일 여운이 남은 감동으로 행복한 나날입니다. 공제회의 좋은 정보와 이벤트를 통해 공제회원들의 작은 행복에 앞장서 주는 더욱 좋은 매거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전*진 회원 대구 동천초등학교

매월 연재되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울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들이 뺏겨 달리는 고속도로보다 꼬불꼬불 굽은 옛 도로가 더 좋아지는 것과 같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정령과 열정으로 한 시대를 일으켜 세웠던 그때가 이제는 추억으로 떠올려야 하는 옛일이 되고 말았네요. 11월호에는 「The-K 매거진」에 변화를 주었네요. 각종 회원 의견 구분 배열 및 아이콘과 요약 글, 그리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당첨 회원. 매월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The-K 매거진」을 보니 받아 볼 때마다 신선함을 느끼게 되어 매우 좋습니다. 또 금융, 숙박, 레저 등 각종 정보와 회원 이벤트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호는 또 어떤 정보와 어떤 신선함으로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김*인 회원 前 청송 안덕초등학교

‘꿈 너머 꿈’ 코너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를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이론과 실제 적용된 현장에 대한 생동감 넘치는 정보가 좋았습니다. 과목별 교과를 주제를 통한 교육으로 바꿔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방법은 자기 주도 학습과 더불어 너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울곧게 커 나가도록 하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마을 공동체 교육이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과 적용 방법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과 함께 룬런하는 공제회 고금리 예적금 특장점을 통해 현재 가입한 상품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코로나19와 환율 변동,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할지, 실질적 혜택에 대해 교직원공제회의 상품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됩니다.

지*호 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The-K 매거진」을 알게 된 지 벌써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항상 메시지로 이번 달 매거진이 나왔다고 하면 들어가서 무슨 내용이 있나 궁금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바쁜 업무를 끝내놓고 여유가 있을 때 들어가서 여러 소식을 접하다 보면 마음이 힐링되기도 하고 여러 이벤트에 참여해 혹여나 당첨되더라도 하면 기쁜 마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The-K 매거진」의 힘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쁘고 힐링되는 소식, 이벤트 등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발전시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 회원 서울대길초등학교

어떤 매거진보다도 매달 알찬 정보를 전해 주는 「The-K 매거진」 덕분에 이번 달에도 많이 배우고 삶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인생 이모작' 코너의 이찬재-안경자 선배 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제 곧 정년을 맞이하게 될 내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DIY 리사이클링' 생활 속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예술품 만들기에서는 운동화를 화분으로 활용한 식물 심기는 최근 반려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둘 늘려가고 있는 제게 꼭 실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행사는 문화 소외 지역 학교를 찾아가 비보이를 사랑한 일렉 바이올리니스트, 풍선 아트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꿈을 열어줄 것만 같아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유익한 정보를 발굴해서 전해주는 「The-K 매거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경 회원 대구 성산고등학교

'방방곡곡 숨은 명소' 코너에서 전남 해남군과 관련된 글을 잘 읽었습니다. 해남에도 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달마산에 알록달록 가을이 내려앉은 모습이 절경이어서 눈이 갑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 10월 중순 주말에 설악산에 갔는데 사람들이 배곡히 줄 서서 천천히 올라가 참 아쉬웠는데 오. 교사이기 때문에 가을철엔 어딜 가나 복적이는데 사람들이 붐비지 않으면서 시기별로 가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주셔서 유익한 코너입니다. 매월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생 이모작' 코너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퇴직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11월호에서도 부부가 함께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부러움마저 느낍니다. 꿈과 열정만 있다면 나이도 제약이 되지 않고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 회원 서울중원초등학교

언제나 감동과 행복은 주는 「The-K 매거진」! 이번 주에도 행복한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제회 예적금 특장점 기사를 본 뒤 살펴보니 10년 이상 꾸준히 적립해 장기저축급여 금액이 많이 불어나 있네요. 안정적인 금융 혜택과 평생 복지로 신뢰를 주는 교직원공제회,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교직원공제회를 등대, 한정식, 비타민 등에 비유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추운 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핫팩입니다. 지나 영 교수님께서 육아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내 아이와 학생들, 교직원공제회를 생각하고 아끼겠습니다. '에세이' 코너처럼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주*호 회원 안산해솔초등학교

매달 틈날 때마다 읽어보는 「The-K 매거진」, 이번 달도 수업 준비와 각종 공문서 처리 등을 끝내고 여유가 생겨 「The-K 매거진」을 읽어봤습니다. '건강한 집밥' 코너의 김치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선생님, 유명 인사의 사연이나 강의에 관한 줄글 위주로 읽어왔던 거 같은데 이번 달은 요리가 눈에 먼저 들어왔고,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요리 잡지에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 플레이팅도 예쁘고 음식을 담은 사진과 레시피 설명 등이 완벽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아란치니, 순두부 김치 샐러드를 가족에게 직접 만들어주자 싶어 레시피를 사진까지 찍어 퇴근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데 「The-K 매거진」을 읽으며 요리도 하게 되어 가족들은 제 의외의 모습에 놀랐고, 저 또한 신기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요리부터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맛도 있고 눈으로 보기도 예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음식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 회원 남창중학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기존의 자폐성 장애를 다룬 영상물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이었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여운이 남았습니다. **캔디처럼 씩씩한 인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김병건 교수님** 「The-K 매거진」을 통해 만나 뵈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바라는 교수님의 관점이 담긴 후속 드라마도 기대해 봅니다. 사회 이슈를 놓치지 않고 매거진을 만들어주신 「The-K 매거진」 편집실분들께 칭찬 도장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나 회원 인천간석초등학교

매일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감사한 가을을 「The-K 매거진」에서는 어떻게 담았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11월호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는 글'부터 찬찬히 읽어보았지요. '조금 불편해도 혹은 변화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관성처럼 무언가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며 노력을 더 할 때 비로소 시작되곤 합니다'라는 문구가 참 와닿습니다. 늘 궁금한데, 이렇게 좋은 문구들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 뒤에 숨겨진 작가님, 수많은 편집자님들의 노력이 궁금해지네요. 더불어 나도 언젠가 에세이에 글을 두고하는 날이 오려나? 하는 근본도, 계획도 없는 실행과 함께 다른 선생님들의 글들을 읽어나갔어요. 다음 호를 받아 볼 때면 이제 가을은 지나가고 겨울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김*경 회원 대구대명초등학교

36년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해 퇴직 후 안정된 생활 자금을 마련하고자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해약하게 되어 부산지부를 직접 찾아가 담당 직원의 친절함 안내로 원만하게 해결했고, 쓸쓸하게 이자까지 챙겨 교직원공제회의 자금 운용이 얼마나 유용한지 다시 한번 믿음이 가득군요. 다음에 다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재가입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던 시간에 「The-K 매거진」을 보았는데, 온갖 유익한 정보와 소식이 가득 차 있어 집에 와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받아볼 수 있도록 정기 우편 발송도 신청했습니다. 다음 호에도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소식이 가득한 「The-K 매거진」을 기대합니다.

박*규 회원 前 양운고등학교

'뚝뚝! 트렌드 경제'의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기사가 특히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김경필 작가님은 TV 프로 '국인 영수증'에서도 빈 분인데, 「The-K 매거진」에서도 글로 만나게 되다니, 「The-K 매거진」의 섭외 능력 대단하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중에서 SNS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 SNS를 보면서 소비 플렉스, 충동구매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기사 많이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디 회원 중산초등학교

The-K 행복서비스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 나들이'를 기사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산간 벽지 마을로 찾아가 학생들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공제회에 감사한 마음이 더욱 생겼습니다. 멋진 연주와 공연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아 나아가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The-K 매거진」 신고 달려가는 커피트럭'으로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주는 공제회 기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꿈 너머 꿈'을 통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선생님의 노고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 다짐해보면서 매월 잡지를 읽다 보면 다음 달의 「The-K 매거진」이 기다려집니다.

이*걸 회원 흥천중학교

「The-K 매거진」을 만드는 분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분들인 거 같아요. 어떤 호는 따뜻한 마음으로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호는 큰 소리로 웃게 만드는 마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감동과 재미뿐 아니라 유익한 정보도 많이 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독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났다 하는 존재,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죠.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고, 또 보게 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벤트도 참 재미있어요. 꾸준히 응모하게 만드는 내용, 참신하고 흥미로운 단발성 퀴즈도 재미있고, 지루하고 힘든 직장 생활에 활력소가 됩니다. 당첨이라도 되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으로 보내주신 쿠폰으로 동료들과 커피도 나눠 마시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최*주 회원 전북대학교병원

최근 시중 금리인상으로 경제나 투자 방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위험을 기피하고 클래식한 투자를 선호하는 저는 목돈급여에 꾸준히 예금하고 있습니다. 연복리의 장점과 안정성, 그리고 시중 변동금리가 반영되어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오르는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아이들 교육비와 우리의 노후자금을 충실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제회 소식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많은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The-K 매거진」, 감사합니다.

김*정 회원 경북대학교

매월 초 「The-K 매거진」 발간 소식이 문자로 올 때 새로운 한 달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당첨은 되지 않더라도 커피 쿠폰 당첨을 기대하며 한 번씩 당첨 확인을 눌러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기대되고 설레는 한 달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많은 동료들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은퇴 후를 걱정해 주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퇴직 후에도 기댈 수 있는 교직원공제회가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매월 매거진을 편집하고 이벤트를 구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The-K 매거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임 회원 경기예술고등학교

세상에는 수많은 매체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도 「The-K 매거진」은 굉장히 정제되고 긍정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항상 편안하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언제나 편하게 열고 읽을 수 있어서 좋고 내용도 길지 않고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제공되어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읽힙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매거진답게 교육 전반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한 양질의 기사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복잡하거나 어지럽지 않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직접 돈을 투자하는 만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어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항상 애쓰십니다.

강*우 회원 여산고등학교

늘 '이번 호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 기대하며 「The-K 매거진」을 클릭하게 됩니다. 마음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내용이 담겨 있어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읽어 내려갔네요. 궁금했던 협동조합 이야기도 담겨 있고 동네·지역의 문제를 학생·주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교육시설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했다는 글을 보고 우리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흐뭇했습니다.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소, 지역사회를 위한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씩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송*진 회원 가평중학교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K)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



공제회원님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교직원라이프 생명보험 브랜드 영상 & 한 줄 사연을 만나보세요!



교육 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를 위한 국내 유일 교직원 맞춤형 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입니다. 2023년에도 회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교직원라이프의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보험 및 건강 정보가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교직원라이프의 마음을 가득 담은 브랜드 영상과 회원님들의 귀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일과시간 후 불 꺼진 교무실을 돌아보면서,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교과수업 준비부터 아이들 챙기기까지, 바쁜 격무 속에 선생님들이 정작 본인의 건강은 잘 돌보고 계시는지 염려되어 작은 것이라도 챙겨주려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담아 보았는데요. 매일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건강 고민만큼은 덜어드리고 싶은 교직원라이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나에게 교직원라이프란 OOO다' 이벤트 '한 줄 사연'을 만나보세요!

한편 지난 12월, '당신의 따뜻한 마음' 영상 소개와 함께 진행한 '나에게 교직원라이프란 OOO다' 이벤트에 많은 교육 가족 여러분께서 진솔한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을 '한 줄'씩 발췌해 소개합니다.

< 교직생활형 >

- '교직원라이프란 눈물나게 힘들지만 눈부신 행복이다'
- '교직원라이프란 가르치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삶이다'
- '교직원라이프란 어린 새싹들을 보듬는 햇살이다'
- '교직원라이프란 고된 하루 짝 찬 마음이다'

교직 생활의 책임감, 그리고 보람에 대해 많이 표현해주셨습니다. 교사,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지는 사연들이 감동적이었는데요. 치열한 일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직원라이프가 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보험혜택형 >

- '교직원라이프란 존재만으로 큰 힘이다'
- '교직원라이프란 든든한 울타리다'
- '교직원라이프란 숨은 조력자다'
- '교직원라이프란 내 마음속 든든한 보험이다'

교직원라이프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신 회원님들의 사연입니다. 교직원라이프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 가족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라이프 홈페이지(<https://ktcuklife.com>)는 지난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며 대신 더 편리하게 모아보실 수 있도록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https://www.ktcu.or.kr>)를 통해 다양한 보험 이벤트 및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홈페이지 상단의 '보험'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원라이프 홈페이지에 관심 가져주시고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회원님들께 유용한 보험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2023년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교직원라이프가 기원합니다.



우리의 온리원은
교직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이렇게 만나세요!

- ▶ 홈페이지 '재정전문위원 찾기' 거주지역과 가까운 최고의 보험 전문위원에게 맞춤형 상품을 직접 추천받을 수 있어요!
-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상품별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상품을 선택하고,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 ▶ 간편하게 '전화 문의하기' 보험가입 상담 1577-3993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을 위한

새로워진 온라인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토끼 캐릭터



찾아 힌트를 얻고 퀴즈를 맞춰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토끼 캐릭터 아이콘을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토끼가 주는 힌트를 따라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토끼를 잡아라' 배너를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CU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1. 1. ~ 1. 31.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토끼를 찾아 클릭 ▶ 토끼가 출제하는 퀴즈 풀기 ▶ 퀴즈 정답을 맞추고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3. 1. 이후



지금은 댓글 남길 시간! 영상 리뷰 댓글왕 이벤트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응모하시는 분의 댓글과 구글폼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CU편의점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3. 1. 1. ~ 1. 18.
- 응모 방법 : ①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② 'The-K 매거진' 1월호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이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다신 후
③ 본문 글의 구글폼 양식에 응모하시는 분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셔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3. 1. 이후

「좋은 사람 좋은 생각」



「DIY 리사이클링」



* 댓글왕 이벤트는 응모 댓글을 남겨주신 후 응모단계에서 구글폼에 접속해 정보까지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구글폼 링크는 '영상 제목'을 클릭하면 보이는 본문 글 내용 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평생 직업은 바로 학생이다. 우리는 평생, 다시 배워야한다.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폴 김 부학장 겸 최고기술경영자도 마찬가지다.

The-K 퀴즈

이번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으셨나요?
아래의 OX 퀴즈의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5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OX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3. 1. 1. ~ 1.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3. 3. 1. 이후

12월호 퀴즈 정답

QUIZ 1. 신광렬
QUIZ 2. 서천
QUIZ 3. 위로켓단



매월호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하위 1% 학생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된 사람의 이름은 '폴 김'이다.
(p.18~21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참조)



2 충남 청양 칠갑산 기슭에 있는
소읍 천장리가 눈과 얼음을
테마로 하며 생긴 명칭은
'청양 아이슬란드'다.
(p.42~47 「방방곡곡 숨은 명소」 참조)



3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 총 82명으로
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는 운영위원회다.
(p.62~63 「The-K Focus 1」 참조)



「The-K 매거진」 1월 즉석 당첨 이벤트

기쁨이 쾡쾡 자라나는 계묘년 새해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신년 계획을 응원합니다

「The-K 매거진」에서 드리는 행운의 선물과 함께
올 한해 이루고 싶은 계획을 행복하게 세워보세요.
공제회원들의 일상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응모 기간 : 2023. 1. 1. ~ 1. 31.



1,0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천원권

1,000개

-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재
-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 경품 발송** 2023. 3. 1. 이후 (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 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02-3443-8005 / 월~금 09:00~18:00)

